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주간 제1043호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2026년 10월 14일

할랄 인증 의무화 2026년 10월 18일 강행… 경제학계 “제도적 보완 시급”

- 정부, 2026년 10월 18일 예정대로 시행 방침 재확인
- 경제학계, 보편적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경고… '비할랄 표시제' 도입 및 단계적 집행 제언
- 심사 역량 격차 해소, 상류 부문 일괄 인증 등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 촉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2026년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 내 영세 및 중소기업(UMK) 제품을 대상으로 한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2014년 제33호)」 및 「할랄 제품 보장 분야 운영에 관한 정부령(2024년 제42호)」에 의거한 것으로, 자국 내 유통 제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별개로, 경제학계에서는 자본과 행정 역량이 취약한 영세·소상공인(UMKM)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집행이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연일 제기하고 있다.

CELIOS “보편적 의무화 재검토 필요… ‘비할랄 표시제’ 대안 제시”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나일룰 후다(Nailul Huda) 소장은 서면 성명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현장 여건을 무시한 할랄 제품보장법(UU JPH)의 획일적 적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후다 소장은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특성상 일상에서 할랄 식품을 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용이하다”며 “모든 영세·소상공인의 제품에 인증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적인 비할랄(non-halal) 식품에 별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하는 현행 인증 구조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거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망이 복잡하고 원재료의 ‘할랄 임계점(critical point)’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일반 가공식품과 단순 가공 형태의 영세 사업자 제품을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후다 소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든 유통 제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 조항에서 찾으며,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제품군 및 사업 규모별 위험도에 따라 인증 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복잡한 공정을 수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되, 영세 사업자에게는 규제 준수와 사업 영속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ORE “인증 비용보다 무서운 간접 규제 비용… 집행 기관 역량 확충 선행돼야”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연구소(CORE)의 유수프 렌디 마닐렛(Yusuf Rendi Manilet) 연구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교한 거버넌스와 단계적 이행 설계를 촉구했다. 유수프 연구원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현장 집행 체계가 영세 사업자의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 및 할랄 인증서 견본

그는 규정 준수에 따르는 부담이 단순 발급 수수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사업자들은 사업자인증번호(NIB) 발급, 원자재 수급 경로 문서화, 복잡한 서류 구비, 납품업체 조정은 물론, 상황에 따라 생산 라인 분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규제 준수 비용은 고정비용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재정적 압박으로 귀결된다는 분석이다. [A4면에서 계속]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인도네시아·이집트, 국방 협력 및 연합훈련 대폭 강화 합의

인도네시아와 이집트가 방위산업 및 연합 군사훈련을 포함한 국방 전반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샤프리 샴수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12일 공식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산업 협력과 인적 자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연합 군사훈련에 이르는 포괄적 국방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전날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에서 열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 도출됐다.

샤프리 장관은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과 합동 교육·훈련, 전문 지식 상호 교류를 통해 군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기부터 이어져 온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위산업 프로젝트 내용과 기술 이전, 투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방침이다.

한편, 약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국방 분야 외에도 경제, 통상, 해양,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합의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시장 접근성 확대와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략적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공동투자펀드' 조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불법 어업 근절 등 해양 자원 보존 협력과 함께 유학생 교류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집트 측이 인도네시아 유학생을 위해 의학·공학 등 주요 이공계 분야 장학금을 확대한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에서 열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프라보워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이번 합의들은 인도네시아와 이집트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정부, 사우디 리야드 공항 피격에 경계령… "이주노동자·순례객 안전 최우선"

- 킹 칼리드 공항 공격으로 중동 안보 불안 고조… 인니동포에 불요불급한 이동 자제 권고
- 당국 "인도네시아인 사망자 없어… 가짜 뉴스 경계하고 공식 정보 주시해야"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을 겨냥한 공격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각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공식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발생한 예멘 후티 반군의 소행 추정 공격으로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민간항공청(GACA)에 따르면 이번 피격으로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으며,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관계 부처는 자국 이주노동자(PMI)와 움라(소순례) 순례객을 포함한 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이동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무크타루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보호부(P2MI) 장관은 12일 집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현지 이주노동자들은 절대 동요하지 말고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하지·움라부(Kemenhaj) 역시 현지 지침 준수를 촉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크산 마르샤 하지·움라부 대변인은 "순례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위험 지역 방문을 피하고 사우디 당국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따라 달라"고 전했다.

당국은 특히 후티 반군의 주요 표적이 되어온 아브하, 자잔, 나지란 등 남부 국경 지대를 주요 위험 지역으로 꼽았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항공 시설 위협을 받고 있는 리야드 및 제다 공항 일대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하지·움라부는 현지 체류객들에게 공인 여행사(PPIU)와의 상시 비상 연락망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사우디 입국을 앞둔 예비 순례객들에게도 항공편 운항 여부와 출국 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미검증 정보에 의존한 독자적 판단을 지양하고, 변동 사항 발생 시 공식 여행사를 통해 명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제다의 알살람 궁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와 양자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 2025년 7월 2일 BPMI Setpres)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지 긴급 전화(리야드·메카·메디나·동부주 911, 기타 지역 998) 또는 주리야드 인도네시아 대사관 핫라인(+966-56-917-3990)을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외교부(Kemenlu)는 이번 공항 피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다. 헤니 하미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국장은 부상자 명단에 자국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우디 당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행정부 출범 2년… 국민 75% “정부 정책 탓에 스트레스”, 민생고·리더십 위기 직면

- CELIOS · 섀도 캐비닛, 국정 운영 2개년 종합 평가 보고서 공개
- 응답자 78% “생필품 가격 급등이 최대 불안 요인” … 가계 경제 악화 호소 53%
- 전문가 71% “대통령 리더십 역량 미흡” … 국정 수행 평점, 전문가 2.8점 · 일반 4.6점 ‘낙제점’ 수준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정부 정책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 등 민생 경제 악화와 더불어 최고 통치권자의 언행 및 리더십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적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의 유력 씽크탱크인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와 섀도 캐비닛(Kabinet Bayangan)은 2026년 10월 11일(일) ‘프라보워-기브란 행정부 국정 운영 평가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년간 집권 여당의 정책 실효성과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정책 불만 넘어 대통령 ‘언행’에 스트레스… 전문가 71% “리더십 역량 미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 정권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개별 정책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인 프라보워 대통령 개인의 태도와 소통 방식 역시 주요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이다. 전체 응답자의 67%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언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해 국가 지도자의 메시지 전달 방식과 대국민 소통 역량이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CELIOS 상임이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 4명 중 3명이 정부 정책에 과도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10명 중 약 7명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에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 리더십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시선은 더욱 혹독했다. 조사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 129명 중 무려 71%는 “대통령의 리더십 및 대국민 소통 역량이 매우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평가는 국정 수행 평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문가 집단이 매긴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난 2년 국정 수행 평점은 10점 만점에 불과 2.8점에 그쳤다. 일반 대중의 평가 역시 4.6점으로 집계되어, 기준선인 5점을 밑도는 ‘낙제점’ 수준을 기록했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에 대한 평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브란 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 전문가는 10점 만점 기준 2.2점이라는 극히 저조한 점수를 부여했으며, 일반 대중의 평점 역시 4.9점에 머물렀다. 출범 초기 제기됐던 국정 운영 경험 부족과 자질 논란을 임기 2년 차에 접어들어서도 불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생필품 가격·구직난’이 스트레스 뇌관… 가계 경제 악화 체감 53% 달해

국민들이 호소하는 일상적 고통의 근원에는 파탄에 직면한 민생 경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비마 상임이사는 대중이 체감하는 심리적 압박의 3대 핵심 요인으로 ▲생필품 가격 급등, ▲일자리 구직난, ▲법 집행 및 관료제 문제를 차례로 꼽았다. 이어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우려가 네 번째 스트레스 유발 사안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78%는 ‘생필품 가격 안정’을 정부가 즉각 해결해야 할 최우선 중대 과제로 지목했다. 물가 폭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초적인 생계유지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질 가계 소득과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도 팽배했다.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3%는 “1년 전과 비교해 가계 경제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반면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중립적 응답은 31%였으며, “경제 상태가 개선됐다”고 체감한 비율은 16%에 그쳐 국민 다수가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음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경제의 또 다른 축인 고용 지표에 대한 위기감도 컸다. 응답자의 58%는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 국가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직결된 ‘사회보조금(Bansos) 및 사회 안전망 정책’이 우선 과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28%에 달했다. 이 밖에도 교육 현안(18%), 에너지 문제(6%)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 보유를 전면 의무화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2026년 9월 7일(월)

한편, 환경 및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한 행정부의 무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적 고질병으로 꼽히는 산불 및 토지 화재(karhutla) 대응과 관련해 응답자의 96%는 “정부의 조치가 비효과적”이라고 질타하며 국가적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에 강한 불신을 표 드러냈다.

■ 표본 신뢰성 확보한 심층 진단… “국정 기조 전면 쇄신 불가피”

이번 연구는 2026년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다각적인 표본 수집 방식을 통해 수행됐다.

CELIOS는 정책적 통찰을 도출하기 위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기법을 적용, 다양한 거주 지역과 학술·산업적 전문 배경을 지닌 전문가 129명을 엄선해 심층 정량 조사를 병행했다.

아울러 민심을 가감 없이 반영하기 위해 메타 광고(Meta Ads) 기반의 비확률 표집 방식을 가동, 인도네시아 전역의 일반 유권자 1,142명의 표본을 확보했다. CELIOS 측은 통계적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전국 17세 이상 인구 구성 비율에 맞춰 엄격한 인구통계학적 가중치(weighting)를 적용해 최종 데이터를 보정·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프라보워 행정부에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입을 모은다. 출범 2년을 기점으로 정책 피로도와 생활고가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현 정부가 통치 스타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필품 가격 통제 및 고용 안정 등 실질적인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루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국정 동력 상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A1면에 이어서]

행정 집행 기관의 물리적 처리 역량 한계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목됐다. 유수프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당초 2024년 목표치 달성을 위해 요구된 일평균 인증 발급 건수는 약 10만 2,000건에 달했던 반면, 당시 집행 기관의 실제 처리 능력은 일 2,678건 수준에 불과했다. 유수프 연구원은 이러한 거대한 격차를 좁히지 않은 채 의무화를 강행할 경우 행정 공백과 사업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수프 연구원은 ▲공식 인증, ▲자가 선언(Self-declaration), ▲성분 표기 의무화로 이어지는 ‘위험도 기반 3단계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축장 및 원자재 공급 시설 등 상류(Upstream) 부문에 대한 사전 인증을 통해 하류(Downstream) 영세 사업자의 중복 심사를 대폭 감면하고, 수입 원자재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및 해외 공인 인증 상호 인정 제도를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저위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유예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는 제도적 완충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연기 없이 10월 18일 시행… 사업자 보호 세부 지침 마련 및 사칭 사기 주의 당부”

학계의 우려와 유예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2026년 10월 18일부로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공고히 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소기업, 수입품, 특정 원자재 등을 포괄하는 세부 맞춤형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an) BPJPH 청장은 “본 정책은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균형 있게 집행될 것”이라며, “기업의 영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 신뢰와 비즈니스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지도·육성 및 사후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이칼 청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BPJPH를 사칭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업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미인증에 대한 벌금 부과나 행정 제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고액의 대행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BPJPH는 할랄 인증 절차 및 법적 의무 사항에 관한 모든 공인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bpjph.halal.go.id)를 통해서만 공지되므로 비공식 채널을 통한 금전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2026년 10월 18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확고한 집행 의지와 경제학계의 속도 조절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EKSTRAK GINSENG MERA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 hongsamball.id

기브란 부통령 탄핵론 ???
정치권 '신중 모드' 속 엇갈린 셈법

- 헌재 '학력 요건' 판결 계기로 원고 측, 의회 및 정당 면담 추진
- 민주당·PKB·PAN '판결문 검토·신중론', PDI-P '민생 우선', PKS '정치쟁점화 주목'

2024년 대선 당시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출마 자격(학력 요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MK)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국에 기브란 부통령에 대한 탄핵(Pemakzulan)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송을 주도한 원고 측이 입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접촉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정당들은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각기 다른 계산법으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 소송을 제기한 덴니 인드라야나는 2026년 10월 9일, "하원(DPR)과 국민협의회(MPR) 내 원내교섭단체에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상원(DPD) 지도부와도 소통하고 있다"며 탄핵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각 정당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 나온 헌재 판결을 동력 삼아 입법부를 통한 탄핵 절차에 불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의회 내 주요 정당들은 섣부른 개입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Partai Demokrat)은 헌재 절차를 존중하며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헤르만 카에론 사무총장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곧바로 탄핵 추진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원내 다수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직접적인 정쟁 참여를 피하는 모양새다. 간자르 프라노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탄핵 논의에 대한 구체적 언급 대신, 주민 피해와 외교적 마찰을 유발하고 있는 칼리만탄 지역의 산불 및 토지 화재(Karhutla) 대응을 강조했다. 정치적 논란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방점을 찍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각성당(PKB)과 국민수권당(PAN)은 판결문에 대한 정밀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PKB 소속 무함마드 코진 의원은 공식 판결문 사본을 검토한 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PAN의 비바 요가 마울라디 부대표 역시 권력 투쟁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양당 모두 법적 명확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번영정의당(PKS)은 이번 사안이 법적 영역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마르다니 알리 세라 위원장은 헌재 판결로 유의미한 법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었으며, 논란이 사회·정치적 국면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PKS는 정당과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탄핵 추진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거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UUD 1945) 제7A조 및 제7B조에 따르면, 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DPR)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에 의한 탄핵 소추 의견 의결, 헌법재판소(MK)의 인용 심리, 그리고 국민협의회(MPR)의 최종 승인 등 엄격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한다.



기브란 라카부밍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중부 자바주 바탕에서 발생한 MBG(무상 영양 급식) 식중독 피해자 중 한 명을 위문. (28/9/2026)(Sekretariat Wakil Presiden RI)

결국 대선 자격 관련 헌재 판결이 곧바로 헌법상 탄핵 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 측의 민원 제기가 하원 내 공식 의제로 성립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각 정당이 법적 타당성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셈법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브란 부통령 탄핵론을 둘러싼 정국의 향방은 헌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최종 유권해석과 향후 여론의 추이에 좌우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기브란 부통령 학력 논란 재점화…
印 하원, '해외 학위 인정 규정' 법제화 추진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해외 학력 서류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의회가 관련 법제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법재판소(MK)가 고등학교(SMA)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해외 학위증 및 교육 이수 서류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교육 소관 상임위인 제10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내에 해외 학위 인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교육체계법 개정안(RUU Sisdiknas)'에 해당 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0위원회 소속 랄루 하드리안 이르파니 부위원장은 12일 자카르타 세나얀 의회 단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국가가 학위 동등 인정을 승인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정한 법률 조항은 전무했다"며 "이는 국가 차원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해외 학위 인정 절차가 상위 법률 없이 교육 담당 부처의 내부 훈령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해석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관 부처인 초·중등교육부(Kemendikdasmen)를 향해 해외 학업 성과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독자적·구체적 평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

랄루 부위원장은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제10위원회는 해외 학위 인정 절차를 국가교육체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유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공방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교육체계법 개정안은 현재 하원 법제위원회(Baleg)에서 법안 조율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아궁 위디안토로 제10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총 16개 장, 25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학위 인정 규정 외에도 국가 교육 데이터 시스템 통합, 13년 의무교육제 도입 등 주요 교육 개혁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의회는 법안 심의와 병행하여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프라모노 자카르타 주지사, 韓과 손잡고 AI 기반 도시 문제 해결 나선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과밀 주거지역 정비와 공공서비스 개선 등 당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한다.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중부 자카르타 아야나 미드플라자에서 열린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AI 파트너십' 원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의 AI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자카르타는 AI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서울시·제주특별자치도·충청남도·논산시 등 이미 자매결연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지자체들과의 교류가 이번 협력 확대의 견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중부 자카르타 타나아방 일대(캄풍 발리, 크본 플라티, 크본 카창) 약 2.3km 구간의 과밀 주거구역 재생 사업이다. 시청과 인접한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60년 가까이 정비되지 않아 극심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곳이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강제 철거 및 이주 방식 대신 AI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리모델링과 도시 재생을 추진할 방침이다.

AI는 도시 구역 설계 지원,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정량화된 정비 데이터 도출 등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 전체 데이터센터의 절반에 달하는 102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구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이번 사업은 슬럼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가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포용성을 지키며 철저히 인간 중심의 기술 적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주거 정비 외에도 공공 서비스, 교통 관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전반으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측 역시 파트너십 확대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자카르타 수도주 정부는 타나 아방 지역의 인구 밀집 주거지 정비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대한민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추진된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한국은 탄탄한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난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AI가 양국 간 유망 협력 분야로 논의된 바 있다"며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안디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2045 연구소 수석고문 또한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청년 세대와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세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기술 적용 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조코위 전 대통령, '기브란 학력 소송' 헌재 선고 당일 프라보워 대통령과 전격 회동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제7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학력 적법성을 둘러싼 헌법재판소(MK) 판결이 내려지던 시점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한 정치·사법적 사안의 선고 공판과 맞물려 성사된 이번 회동의 배경을 두고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 취재에 따르면, 조코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저녁 7시경(현지시간) 남부 자카르타 크바요란 바루 케르타네가라에 위치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방문했다.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약 1시간 45분간 머문 뒤 오후 8시 45분경 종료됐다. 직후 프라보워 대통령 역시 국산 전술차량인 마웅(Maung)을 타고 관저를 떠났다.

이번 만남은 헌법재판소가 기브란 부통령의 2024년 대선 입후보 당시 학력 요건 적법성을 다툰 심판 청구(사건번호 제01/PHPU.PRES-XXIV/2026호)에 대한 판결을 낭독하던 시점과 정확히 겹치며 파장을 낳고 있다. 조코위와 프라보워 양측 모두 회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여러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인 거린드라당의 일상업무위원장이자 하원(DPR) 부의장인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는 7일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회동이 진행되던 시각 헌법재판소는 데니 인드라야나 등 청구인 12명이 제기한 기브란 부통령의 당선 무효 및 자격 박탈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대선 결과 분쟁 제도 체계상 당사자 적격(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판결 이유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관계를 명시했다. 재판부는 기브란 부통령이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최소 학력 인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할 해외 학위증이나 수료증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호주 'UTS 인서치(UTS Insearch)' 서류는 출석 증명서(Certificate of Attendance)에 불과해 정식 수료나 졸업 증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헌재는 기브란 부통령이 이미 2024년 10월 20일 공식 취임하여 대선 후보자 신분이 종료된 만큼, 이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화하거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실질적 심사는 소관 기관의 몫으로 돌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다스코 하원 부의장은 "청구가 각하되었다는 판결 내용은 명확하며, 의회는 헌재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 담긴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대응에 대한 섣부른 추측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GV | 2026년 10월 13일 ~ 19일

영화 그 이상의 감동

이번 주 상영!

10월 12일



*음악
*블랙핑크의 멤버이 잠시 중단된 후, LISA가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한다. LISA가 데뷔 솔로 앨범 'Alter Ego'를 작사하고 녹음하며 발매하는 여정을 담았다.

10월 14일



*액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두 스트리트 파이터가 다시 링에 뛰어들어 격투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동시에 지명적인 음모에 맞서야 한다.
*4DX와 SCREENX 포맷 관람 가능

10월 16일



*호러
*한 잡지 편집자가 오컬트 기사들을 읽은 후 실종된다.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으자 특정 장소에 대한 끔찍한 사실이 드러난다.





커밍 쑨 in CGV

10월 25일 & 31일



*음악
*BTS 라이브 뷰잉이 처음으로 남미에서 생중계된다. 이 대형 콘서트는 경기장의 독발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대형 스크린에 담아낸다.

*음악
*BTS의 라틴 아메리카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형 콘서트로, 브라질 경기장의 열기와 에너지를 가득 담아낸다.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기브란 부통령 학력 요건 논란에 "규정 따른 적법한 검증" 공식 입장 표명

인도네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가 2024년 대선 당시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학력 요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MK)의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KPU는 헌재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당시 후보자 학력 서류 검증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명확히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정·부통령 선거결과 분쟁(PHPU) 사건 심리 과정에서 판결 이유를 통해 기브란 부통령의 해외 학위 및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동등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이 해당 사건을 제기할 원고 적격(법적 지위)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최종 각하했다.



Wakil Presiden Gibran Rakabuming Raka (Foto: Dok Istimewa)

이와 관련해 모하마드 아피푸딘 KPU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내고 "2026년 10월 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제01/PHPU.PRES-XXIV/2026호)의 주문과 법적 판단 전체를 엄중히 존중한다"며 "향후 선거 관리 행정의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피푸딘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당시의 검증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KPU의 책임이 서류의 형식적 적격성을 검증하는 데 있으며, 해외 학력에 대한 실질적인 동등성 심사 및 인정 권한은 주무 부처인 교육문화연구기술부(Kemendikbudristek)에 속한다고 선을 그었다.

KPU에 따르면, 당시 선관위는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 8월 교육 당국이 발급한 학력인정 증명서와 고등교육학생과국장 결정서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아피푸딘 위원장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행정 문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적법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서류를 처리했다"며 "해당 서류는 2020년 수라카르타 시장 선거에서도 문제없이 수리된 전력이 있으며, 2024년 대선 심사 당시에도 철회되거나 취소된 바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선관위 규정(PKPU 2023년 제19호)상 후보자 서류에 의구심이 제기될 경우 관계 기관에 추가 소명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대중이나 선거감독위원회(Bawaslu)를 통해 접수된 이의 제기나 고발이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아피푸딘 위원장은 "당시 접수된 공적 서류와 엄격한 검증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학력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선 후보 등록 심사가 관계 법령과 메커니즘에 따라 한 치의 흠결 없이 집행되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헌재, 기브란 부통령 '학력 논란' 심판 청구 각하… 기브란·PSI "사법 절차 존중 속 국정 매진할 것"

2024년 대선 당시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학력 요건을 문제 삼아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MK)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단이 공개된 직후 기브란 부통령은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 성향의 인도네시아연대당(PSI)은 판결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청구인 측의 원고 적격(legal standing) 결여를 이유로 사건 번호 '01/PHPU.PRES-XXIV/2026'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기브란 부통령이 법정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당선 무효 및 직위 박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브란 부통령이 2024년 10월 20일 이미 공식 취임함에 따라 대선 후보자 신분을 벗어났으므로, 해당 사안이 선거 결과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보 요건의 적법성은 소관 행정 기관의 심사 영역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브란 부통령의 신분에는 아무런 법적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이유 설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준하는 학력으로 공식 인정할 만한 해외 졸업장이나 학위증 등의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학력 인정 증명서 발급 당시 제출된 출석 증명서와 성적표 등만으로는 교육 과정의 최종 수료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헌재의 판시 내용이 알려지자 기브란 부통령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절차를 온전히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 논란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면 대학 진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에서 정규 학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학력 인정 서류 보완과 관련해 "조만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완수하는 데 집중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엄호 사격이 이어졌다. PSI 중앙집행위원회(DPP) 베스타리 바루스 정치국장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유학한 기브란 부통령이 인도네시아 고등학교(SMA)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해외 교육 체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행정적 학력 동등성 검증 절차를 거친 만큼 자격 요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흐마드 알리 PSI 상임의장 역시 "청구인 데니 인드라야나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판결 이유에서 이를 다룬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Wakil Presiden Gibran Rakabuming Raka - Foto Dok Istimewa

한편 공식 학력 기록에 따르면 기브란 부통령은 싱가포르 오키드 파크 세컨더리 스쿨을 거쳐 싱가포르 경영개발연구원(MDIS)을 2007년에 졸업했으며, 2010년에는 호주 시드니공과대학교(UTS) 인서치 과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ELLINGTON COLLEGE
INDEPENDENT SCHOOL
JAKARTA

오픈 데이

2027-2028학년도

2026년 10월 17일
오전 9시- 오후 12시

입학생 모집
유아부~5학년



wellingtoncollege.sch.id

인도네시아 노동계, 2027년도 주 최저임금 '7.5%~9.5% 인상' 촉구… 전국 38개 주 연쇄 시위 예고

KSPI "임금 인상이 기업 파산 부르지 않아… 폐업 원인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운영비 부담"
정부 임금 결정 시한 앞두고 지방정부 압박… 퇴직금 기준 현실화 및 외주 규제 개선도 병행 요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 규모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쇄 시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과 노동당은 오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38개 주 전역에서 2027년도 주 최저임금(UMP) 7.5%~9.5% 인상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정한 차기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의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각지의 주지사 집무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대표 Said Iqbal (Foto: Istimewa)

11월 1일 고시 시한 앞두고 38개 주지사 집무실 포위… "결정권 있는 지방정부 압박"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KSPI 총재 겸 노동당 대표는 2026년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계획을 공식화했다.

사이드 대표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전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38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이번 투쟁은 자카르타 중앙정부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권한을 쥔 각 지역 주지사를 직접 겨냥한다. 자카르타 역시 주지사 집무실 앞에서 집중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 최저임금(UMP)과 주 업종별 최저임금(UMSP)은 법적 효력 발생일(2027년 1월 1일)의 60일 전인 2026년 11월 1일까지 최종 확정·고시되어야 한다. 노동계는 지방정부 및 임금위원회가 상한선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인 10월 하반기를 정책 개입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지표 상한선 적용… "하한 7.5%·상한 9.5% 산출"

대통령 노동·복지 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사이드 대표는 이번 요구안(7.5%~9.5%)이 객관적인 거시경제 지표와 법정 산식을 면밀히 검토해 도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인상안 산정에는 전국 평균 인플레이션율,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그리고 현행 정부령(PP 2026년 제49호)에 규정된 특정 지표(알파, α)가 반영됐다.

KSPI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3.20%, 경제성장률은 5.43%로 집계됐다(미발표된 9월 통계청 수치 제외). 여기에 법정 알파 지표 범위(0.5~0.9) 중 최고치인 0.9를 대입하면 전국 평균 인상률은 약 7.7%로 도출된다.

사이드 대표는 "전국 평균 산출치는 7.7%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하한선을 7.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상한선 9.5%는 지역 간 심각한 경제 편차를 고려한 조율의 결과다. 일례로 니켈 등 광업 붐으로 경제성장률 20.05%, 인플레이션율 5.8%를 기록한 북말루쿠주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지표(알파 0.5)를 적용해도 인상률이 12.5%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사이드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된 전례가 없다는 점과 산업계의 수용 능력을 두루 고려해 상한선을 9.5%로 현실화했다"며 노동계의 요구가 비이성적인 과잉 주장이 아님을 역설했다.

재계 파산 우려 일축… "폐업은 저임금 지역 집중, 본질은 수출 침체와 간접비용"

노동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금 인상 발(發) 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이드 대표는 통계를 제시하며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공장 폐업이 가장 빈번했던 곳은 자바틍아(중부 자바), 마잘렝카, 수메당 등 역설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년간 발생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산업 침체의 근본 원인이 임금이 아닌 글로벌 거시환경 악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주로 타격을 입은 섬유·의류·신발 제조업체들은 대표적인 수출 지향형 기업들로, 주요 수출 대상국의 소비 침체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대외 주문이 급감한 것이 실적 악화의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산업용 가스 및 유류(BBM) 가격 급등, 고물류비 등 원자재와 운영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고비용이 기업 채산성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급증한 생산 간접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 축소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 대표는 "모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의 임금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정부와 경영계는 기본공제(PTKP) 소득세 개편, 부가가치세(PPN) 환급, 통관·물류비 인하, 납기 준수 시스템 정비 등 간접비용(Overhead Cost)을 낮추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근본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법제 개정 요구도 병행… 퇴직금 정상화 및 외주 근로 규제 강화 촉구

한편, 이번 연쇄 시위에서 KSPI와 노동당은 최저임금 쟁취 외에도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노동계는 현행 정부령(PP 2021년 제35호)의 전면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법정 기준의 0.5배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퇴직금 규정을 문제 삼으며, 최소 법정 기준 1배 이상의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령(2026년 제6호)의 아웃소싱(외주·파견 근로) 허용 범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새 법령 제정도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사이드 대표는 "파견·외주 직종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해 명확한 원·하청 고용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신분 보장, 단결권, 퇴직금 수급권 등 법이 보장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즉각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1일 고시 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시작되는 이번 노동계의 38개 주 총력 투쟁으로 인해, 임금 인상 폭과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인도네시아 노·사·정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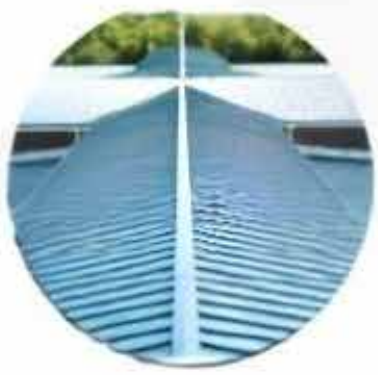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인도네시아 재무부, 체납세금 납부 규정 완화… ‘본세 우선 변제’ 도입

- 가산세 등 행정제재보다 본세에 납부액 우선 충당
- 재무부 “세금 탕감 아닌 납세자 부담 완화 및 조기 회수 목적…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납세금 납부 시 가산세 등 행정제재보다 체납 본세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납부 방식을 개편했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세액의 조기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ke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무부 장관령(PMK) 2026년 제71호’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제정된 기존 장관령(제118호)을 개정한 것으로, 수아하시일 나자라 재무부 장관이 서명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액이 본세와 가산세 등 행정제재 항목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되었다. 이로 인해 체납 본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납세자의 부담이 지속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액은 행정제재에 앞서 체납세금 본세에 전액 우선 충당된다.

비모 위자얀토 재무부 국세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납세자는 본세 납부 의무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세금 탕감(사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모 청장은 “체납 본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행정제재 감면이나 면제 역시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나 조세소송(항소), 재심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행정제재는 이번 감면·면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재정 건전성과 납세 순응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납 본세의 조기 징수를 촉진하는 한편, 자발적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청사 Gedung Ditjen Pajak.(foto. dok DJP)

비모 청장은 “이번 규정 개편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 제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중소영세기업(MSME/UMKM)의 현금흐름 안정성을 확보해 경영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 3.28% 돌파…
내무장관, '3.5% 상한선' 방어 위해 지자체에 식품 물가 총력 대응 촉구

- 9월 연간 물가상승률 3.28%로 전월 대비 확대… 정부 관리 상한선(3.5%) 육박
- 티토 장관 "1·2분위 저소득층 타격 불가피… 쌀·닭고기·계란 가격 철저 통제해야"
- 북술라웨시 등 일부 지역 7%대 급등… 국립식량청·불로그와 긴급 공조 체제 가동 지시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임계점에 근접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식품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상 물가 안정 조치를 전면 지시했다. 지난 9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28%까지 치솟으며 정부의 중점 관리 상한선인 3.5%를 위협하자, 서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무함마드 티토 카르나비안(Muhammad 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10월 1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내무부 사사나 박티 프라자(Sasana Bhakti Praja) 빌딩에서 주재한 '지방 인플레이션 통제 조정회의'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Pemda)에 물가 안정 총력전을 주문했다. 티토 장관은 "현재 물가 지표는 정부가 설정한 최고 한계치인 3.5%에 바짝 다가서며 대단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국 인플레이션율이 3.5% 상한선을 결코 돌파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BPS "9월 물가상승률 3.28%로 반등"… 유류비 및 농축산물 가격 상승 견인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전년 동월 대비(YoY)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28%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인 8월의 3.19%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물가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월 대비(MtM) 상승률 역시 8월의 0.21%에서 9월 0.30%로 확대되며 단기적인 물가 불안 요인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물가 상승세를 이끈 최대 요인은 운송 부문으로 파악됐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외교적 긴장 고조로 인한 글로벌 원유 유통 차질이 국내 연료비(BBM) 인상으로 직결되며 물류 및 교통 전반에 가격 인상 압박을 가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홍수와 대형 산불, 산림·토지 화재(Karhutla)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발하며 물류망을 훼손하고 공급망 차질을 빚어 실물 경제를 위축시켰다.

단기 물가(전월 대비)는 식음료 및 담배 품목군이 견인했다. 해당 품목군은 9월 중 0.88% 급등하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압박했다. 특히 고추를 비롯해 육계(닭고기), 쌀, 계란(식용란) 등 필수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내무부 장관 Menteri Dalam Negeri (Mendagri) Muhammad Tito Karnavian

◆ 저소득층 직격탄 우려… 3대 핵심 생필품 특별 점검 지시

티토 장관은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 기반이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3.5%를 초과할 경우,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최빈곤층(소득 1·2분위) 20%는 필수 식자재 가격이 수천 루피아만 올라도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며 "중산층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일지라도 저소득층에게는 생존의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장관은 품목별 맞춤형 관리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는 "기호품 성격이 가미된 고추는 필수 주소비 품목에서 다소 빗겨나 있어 우려가 덜하지만, 쌀, 육계, 계란 등 3대 품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생필품"이라며 "지방정부는 이 세 가지 품목의 유통 과정과 가격 추이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강조했다.

◆ 지역 간 인플레이션 격차 심화… '북술라웨시 7.59%' 등 지자체 집중 관리

지역별 물가 양극화도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북술라웨시주는 7.59%라는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여 정부 관리 한계치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중앙정부는 북술라웨시주 외에도 북말루쿠, 고론탈로, 파푸아고원, 중부파푸아, 서파푸아, 아체, 중부칼리만탄, 남칼리만탄, 남서파푸아 등을 물가 불안 우려가 심각한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티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선행 및 대리 지표로 활용되는 2026년 10월 둘째 주 가격변동지수(IPH) 추이를 함께 공개하며 신속한 유관 기관 공조를 명령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립식량청(Bapanas), 식량조달공사(Bulog), 현지 식품 유통업계와 즉시 비상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가격 불안 품목을 조속히 식별해 비축 물량 방출, 유통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유가 변동성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마지노선인 '인플레이션 3.5%' 방어 여부가 향후 인도네시아 내수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인도네시아 9월 누적 세수 1,607.6조 루피아 달성… 전년比 24.1% 급증

차세대 세무행정시스템 '코어택스' 안착 및 경기 회복세 견인
부가가치세·사치세 38.6%↑, 석유·가스 법인세는 128.2% 폭증
재무부 "납세자 권익 보장 위해 환급 절차 유연화 병행할 것"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올해 9월 누적 조세 수입이 견조한 경제 회복세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코어택스·Core Tax) 도입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국가수입지출예산(APBN KiTa)'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국세 수입 실현액은 총 1,607조 6,000억 루피아(한화 약 138조 2,5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6년도 연간 세수 목표치인 2,357조 7,000억 루피아의 68.2%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가 전년 대비 4.4% 역성장(1,295조 3,000억 루피아)하며 부진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4.1%라는 가파른 반등세를 기록한 셈이다.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한 수아하시르 나자라 재무부 장관은 "국내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개선 흐름과 더불어, 국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도입 및 정착이 세수 증대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아하시르 장관은 "코어택스가 점진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세원 관리와 징수 절차가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징수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정착과 동시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금 환급 관리 완화 조치 역시 선제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국세총국(DGP)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유연한 환급 절차가 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부가가치세·원유발 세수 견인… 세목별 차별화 뚜렷

세부 항목별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 및 대외 교역 회복세가 세수를 견인한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소비 부문의 대표적 지표인 부가가치세(VAT·PPN)와 사치품판매세(PPnBM)는 전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683조 3,0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유류 도매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국내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369조 5,000억 루피아로 무려 51.3% 급증했다. 수입 부가가치세 역시 국제 유가 상승세와 루피아화 약세에 따른 수입액 환산 효과가 맞물리며 28.1% 늘어난 293조 9,00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 부문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비(非)석유·가스 부문 법인세(PPh nonmigas)는 809조 3,000억 루피아로 17.6% 증가해 전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다. 특히 일반 법인세 수입(276조 7,000억 루피아)은 팜유(CPO)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세와 수출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9% 뛰었다.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은 석유·가스 부문 법인세(PPh migas)는 전년 대비 무려 128.2% 폭증한 43조 6,000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고용 시장 여건과 밀접한 급여원천징수세(PPh 21조)는 근로소득 증가 및 코어택스를 통한 징수 누수 방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189조 4,000억 루피아로 확인됐다.


수아하시르 나자라 재무부 장관

반면, 모든 부문이 고른 성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자산 평가 요인 등으로 토지·건물세(PBB)와 기타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한 71조 4,000억 루피아에 그치며 세목 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 4분기 환급 증가 시 증가율 둔화 전망… "지속 모니터링 필요"

재무 당국은 3분기까지 집계된 세수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4분기 이후의 세수 패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금 환급 완화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순세수 증가율이 일정 부분 조정(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아하시르 장관은 "향후 수개월간 진행될 환급 정책의 집행 속도와 그에 따른 순징수액 변동, 글로벌 원자재 가격 등 거시경제 환경을 면밀히 종합 검토해야 연간 목표 달성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IAL Food & Drinks Indonesia 2026' 개최… 인니 식음료 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인도네시아 식음료(mamin) 산업이 세계적인 F&B 전시회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국제 식음료 비즈니스 전시회인 'SIAL Food & Drinks Indonesia 2026'이 오는 2026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JIExpo) 끄마요란 B·C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현지 제조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국적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18,000㎡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대한민국,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UAE 등 총 13개 국가 및 지역에서 500개 이상의 유력 브랜드가 대거 참가한다. 전시 품목은 원자재 공급부터 가공 기술, 포장 기계, 완제품, 제과·제빵, 커피, 주방 설비에 이르기까지 F&B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른다. 특히 산업부, 창조경제부, 중소기업부 등 현지 정부 주요 부처의 후원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식품 무역과 글로벌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최 측은 참가 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헨리 탄(Henri Tan) SIAL Network 아세안·인도 총괄 디렉터는 "이번 행사의 핵심 목표는 모든 참가사에게 실효성 높은 비즈니스 미팅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제조업체와 글로벌 주요 의사결정권자 간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인도네시아 F&B 산업의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글로벌 식음료 혁신 제품을 선정하는 'SIAL Innovation'을 비롯해 아시아 최초로 인도네시아에서 론칭되는 요리 경연 대회 'SIAL Culinary Masters Asia', 현지 최고 바리스타를 가리는 'Indonesia Barista Championship 2026/2027' 등이 동시에 열려 산업 종사자들의 전문 역량을 조명한다.



'SIAL Food & Drinks Indonesia 2026'

공급망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 전시도 주목할 점이다. 행사 기간 동일 장소에서 'Indonesia Food Transport & Logistics Expo 2026'이 동시 개최돼 유통, 보관, 콜드체인(저온 유통 체계) 등 종합 물류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F&B 제조사와 물류 서비스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산업 전반의 공급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0여 년 역사의 글로벌 식음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공식 웹사이트(sialfood-drinksindonesia.com)를 통해 업계 관계자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무료 사전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ratama 그룹 2026년 공채모집공고

PT. Pratama Abadi Industri 는 1989년 설립되어 36여년간 지속가능경영을 이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단일기업으로는 Nike 운동화 최대 생산업체로, 연간 4천만족의 생산 Capacity 와 대규모 종업원을 보유하여 Tangerang, Sukabumi, Brebes 및 Garut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화 제조 관련 금형 등 자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원 수 :** 43,000 여명

■ **설립일 :** 1989년

■ **업종 :** 신발제조업

■ **근무처 :** PRATAMA 그룹 (브레베스, 수까부미, 가룻)

■ **채용 분야 :**

- Bottom: IP, CP/CMP, Outsole, PU
- 생산: 재단, 재봉, 준비, 제화"

■ **채용 조건 :**

해당경력 10년 이상
인니어 가능자, 해외거주 경험

■ **희망 임금 수준 :** 채용 시 협의

■ **가족동반 여부 :** 가족동반자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택,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제출기한 :** ASAP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 kb.lee@pratama.net

■ **선발 절차 :**

- 서류전형
- 실무면접
- 경영진 면접
- 건강검진

■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생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7:00 ~ 17:00

■ **지원 방법 :** 이력서 이메일 발송

식약청, “의약품·식품 산업 연 1경 루피아 기여 잠재력”… 인허가 규제 혁신 박차

- 타루나 청장, 마타람대 강연서 산업 생태계 잠재력 강조
- 420만 중소상공인 · 4만 5천 대기업 아우르는 경제 핵심 축… GDP 40% 육박
- 인허가 신속화 · 다운스트림 전방위 지원 통해 ‘경제성장률 8% · 선진국 도약’ 뒷받침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의약품 및 식품 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할 거대한 성장 동력으로 공식 부각됐다. 규제기관인 식품의약청(BPOM)이 단순한 안전 감독 기구를 넘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타루나 이크라르(Taruna Ikrar)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장은 최근 서누사텡가라주 마타람 대학교에서 개최된 대중 강연을 통해, 자국의 제약 및 식품 산업이 지닌 잠재적 경제 가치가 연간 최대 1경 루피아(약 10,000조 루피아·미화 약 5,58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약 2경 3,000조 루피아 규모로 집계되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35~40%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이하 BPOM)

■ 430만 사업자 망라한 방대한 생태계… “1경 루피아 기여 결코 과장 아냐”

타루나 청장은 이번 강연에서 제약 및 식품 산업이 국민 일상생활에 직결된 필수재 생산·가공·유통·마케팅을 총망라하고 있음을 짚으며 산업 전반의 구조적 잠재력을 상세히 제시했다.

BPOM 집계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내 의약품·식품 산업 생태계는 약 4만 5,000개의 대기업과 420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UMKM) 등 총 430만 사업자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

타루나 청장은 “사업자들의 수익 구조는 연간 수억 루피아 수준의 영세 사업자부터 수조, 나아가 수백조 루피아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고 진단하며, “이들 430만 사업자의 총체적 생산 및 유통 규모를 감안할 때 1경 루피아라는 경제 기여 잠재력은 결코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수백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강조됐다. 현재 BPOM에 정식 등록된 가공식품 사업자만 해도 중기업 약 2,900개, 소기업 약 4,600개, 영세기업 약 7,900개에 이른다. 이들 지역 기반의 중소 사업체들은 현지 원자재를 소비하고 지역 고용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경제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 산업의 전반적인 도약은 대기업의 설비 증설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들이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제도권 인허가를 원활히 획득하는 데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 인허가 단축·다운스트림 지원… ‘경제성장률 8%’ 정부 국정 과제 견인

BPOM은 이 같은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장 수치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적인 행정 및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보건과 직결된 안전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엄격히 유지하되,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복잡한 인허가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타루나 청장은 “BPOM의 역할은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엄격히 감시하는 규제 기관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서비스를 혁신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교육, 그리고 원자재 가공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식약청의 이러한 정책 드라이브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신정부가 내건 ‘연간 8% 경제성장률 달성’이라는 국가적 경제 과제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 제조업과 민간 소비의 핵심 축인 식품·의약품 산업을 고도화하여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극복해 선진국 대열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타루나 청장은 “우리의 모든 행정적·정책적 전략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정부의 국가 발전 기조를 현장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을 투트랙으로 가동해 의약품 및 식품 산업이 인도네시아를 중소득국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견인하는 확실한 기관차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IMF,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1%로 상향… AI 투자 호조 반영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3.1%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 부채 부담 속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IMF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수정된 2026년 성장률(3.1%)은 전년도(3.5%) 대비 다소 둔화된 수치이나, 2027년에는 3.4%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어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의 성패는 ‘AI 공급망 연계성’과 ‘에너지 취약성’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인 대만은 올해 10.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으며, 한국도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역시 견조한 소비와 기술 투자를 바탕으로 2026년과 2027년 각각 2.3%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고에너지 가격의 직격탄을 맞은 유로존은 1.1%, 일본은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중동 산유국과 저소득국의 부진은 심화되고 있다. 분쟁에 따른 원유 생산 및 수출 차질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3.3%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등 주요 수출국 역시 두 자릿수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전 세계 원유 비축량이 하루 270만 배럴씩 줄어드는 등 완충 여력이 고갈되고 있어 올해 국제 유가가 전년 대비 약 41% 급등한 배럴당 평균 95.74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AI 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IMF는 광범위한 생산성 개선이 가시화되기 전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특정 하드웨어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AI 생산성 향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 증시가 최대 20% 폭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028년 글로벌 성장률이 1.1%포인트 하락하는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 건물

한편, 고유가 등의 여파로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5년 4.1%에서 올해 4.7%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IMF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31년 115%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며, 각국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펼칠 때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KOSM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SCIENCE TECHNO PARK UNIVERSITAS INDONESIA
YAYASAN JENDELA ASA INDONESIA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글로벌 인재 매칭의 장

K-Work Bridge Job Fair

지금, 인도네시아 우수한 인재와
함께 할 한국 기업을 기다립니다!



K-Work Bridge 소개

K-Work Bridge는 중진공(KOSME)이 STP Universitas Indonesia 및 Jendela Asa Indonesia(JAI) 재단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인도네시아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 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한국 소재 중소기업과의 취업 매칭을 지원합니다.

준비된 인재,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나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

기업 모집 : 9월 21일 ~ 10월 23일
매칭 기간 : 10월 1일 ~ 11월 12일
채용 박람회 : 11월 12일 (KOSME GBC)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기회

- K-Work Bridge의 우수한 인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 기업의 채용 기준에 맞춘 맞춤형 인재 추천
- 채용 절차 간소화로 효율적인 인재 채용 지원
- 다양한 직무 분야의 인재 모집 가능

채용 진행 절차

※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1. **기업 채용 수요 전달**
   기업 → JAI
   원하는 직무와 채용 조건을 JAI에 알려주세요
2. **후보자 매칭 및 검토**
   JAI가 기업의 채용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선별합니다.
3. **적합 후보자 매칭**
   JAI → 기업
   채용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선별하여 추천합니다.
4. **이력서 검토 후 면접 결정**
   기업이 후보자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기업의 최종 선발**
   면접 후 기업이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인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K-Work Bridge 1기·2기 수료생과 Korea Track 참가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공 및 경력 | 한국어 능력 | 직무 적합성 | 기업 요구 조건

※ JAI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별하여 매칭합니다.

모집 가능한 직무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직무의 인재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 기술직
- 생산직
- QC
- 그 외 다양한 직무
- 통번역
- HR & Legal
- Accounting & Tax
- Sales & Marketing

지금, K-Work Bridge Job Fair에
모집기업으로 참여하세요!
기업의 채용 수요를 알려주시면, JAI가 최적의 인재를 찾아드립니다.

문의처
Yayasan Jendela Asa Indonesia
+62 822-8563-7228 / Cicilia
jendela.org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인도네시아 정부, '디보틀넥' 창구로 기업 규제 135건 일괄 타결… 625조 루피아 규모 투자 물꼬 텄다

- 전담 TF 구성해 190건 중 135건 해결… 3만 1,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 재무부 · TF 공동 주재 청문회 상시화 및 HS 코드별 규제 전수조사 착수
- EU · 캐나다 · 미국 등 글로벌 통상 외연 확장과 맞물려 시너지 극대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 현장의 투자 발목을 잡아온 고질적 병목 규제를 정조준하며 대대적인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섰다. 전담 행정 조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히 해소하는 '디보틀넥(Debottlenecking·규제 병목 해소)' 메커니즘을 본격 가동한 결과, 100건이 넘는 민원을 일괄 타결하며 54조 원 이상의 투자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다.

드라잣 하리 위보워(Drajad Hari Wibow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차관은 12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6년 인도네시아 토착기업인협회(HIPPI) 제3차 전국업무회의(Rakernas)'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 산하 '경제성장 촉진 지원 정부 프로그램 신속추진 태스크포스(Satgas P3M-PPE)'의 운영 실적을 공식 발표했다.

드라잣 차관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접수된 총 190건의 고충 민원 가운데 70%가 넘는 135건의 해결을 완료했다. 특히 이 중 129건은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주요 투자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으로 확인됐다. 이번 규제 해소 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실행 궤도에 오른 투자 규모는 무려 625조 루피아(약 54조 5,600억 원)에 달하며, 향후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최대 3만 1,000명에 달하는 양질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드라잣 차관은 "규제 완화와 뿌리 깊은 관료주의 척결이 수반되는 디보틀넥 정책은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적 안정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열쇠임이 입증됐다"며 이번 성과의 정책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효성 있는 규제 해소를 위해 일회성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소통 창구를 정례화했다. 현재 정부는 재무부 장관과 Satgas P3M-PPE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기업 고충 청문회'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는 부처 간 중복 규제, 인허가 지연,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 기업 활동을 현장에서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즉각적인 타개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아가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가 서류상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산 시설 가동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목분류코드(HS 코드)별 정밀 전수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원자재 및 부품 반입, 완제품 수출 등 물류와 통관 전 과정에 걸친 미시적 규제까지 걷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드라잣 차관은 "투자 유치가 신속한 생산 활동과 실질적인 고용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앞으로 모든 HS 코드를 일일이 면밀히 점검하여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부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외 무역 영토 확장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히 해소하는 '디보틀넥(Debottlenecking·규제 병목 해소)' 창구

드라잣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EU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을 주요 사례로 들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산 고부가가치 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인도네시아-캐나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CA-CEPA)' 체결을 통해 대(對)캐나다 수출이 약 11억 달러가량 증가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약 500만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국내 노동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관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당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연간 최대 2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디보틀넥'을 통한 관료주의 혁파와 과감한 규제 해소, 대외적으로는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수출 활로 개척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체질 개선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가야성 중화요리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가야성에서 준비한

알곤이 짬뽕

톡톡 터지는 알과 부드러운 곤이
깊고 얼큰한 해물 짬뽕



예약 문의
081295094658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인도네시아 정부, 2027년 '가당 음료 소비세' 본격 도입… 1조 7,000억 루피아 세수 확보 나선다

-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세부 규정 정비 박차
- 국가 재정 확충 및 당뇨·비만 등 국민 보건 개선 '일석이조' 노려
- 과세 기준 당류 함량 및 세율 산정 방식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논의 중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포장 가당 음료(minuman berpemanis dalam kemasan , 이하 MBDK)에 대한 소비세 부과 정책을 본격화한다. 오는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조 7,000억 루피아(한화 약 1,470억 원) 규모의 국고 세입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카 부디 우타마(Djaka Budhi Utama)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청장은 지난 13일 서면 발표를 통해 "2027년도 국가예산법(APBN)에 포장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 방침과 약 1조 7,000억 루피아의 세입 목표가 명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카 관세청장은 "현재 제도의 안착을 위한 세부 시행령과 지침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는 시장에 본격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극복하고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동시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첨가당 섭취를 억제하려는 보건학적 목적도 깊이 결부되어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건에 관한 정부령 2024년 제28호' 제194조 제4항을 통해 고당류 제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의 법적 기틀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캔, 페트병 및 기타 포장 형태로 유통되는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 고당도 착향 음료, 버블티 등 과도한 첨가당이 포함된 광범위한 완제품 음료들이 일차적 규제 대상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소비세 도입 선언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기준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과세의 기준점이 될 음료 내 당류 함량 기준치와 최종 세율 적용 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카 관세청장은 "재무부 거시경제재정전략총국(DJSEF)과의 긴밀한 실무 협의를 통해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체적인 세액 규모를 지속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당류 함량 수준과 세분화된 세율 체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가당 음료 소비세 도입은 그동안 시장 충격과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되며 장기 표류해 온 사안이다. 앞서 재무부는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즉석 음료(RTD) 제품에 리터당 1,500루피아, 농축액·시럽·추출액 형태의 제품에 리터당 2,500루피아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하원 국가재정책임위원회(BAKN)는 제품 단위당 2.5% 수준의 종가세를 권고하는 등 과세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왔다.



가당 음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포장 가당 음료(MBDK)에 대한 소비세를 2027년 하반기부터 시행 목표로 설정 (Foto HaninPost Tya Pramadania)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2027년 하반기라는 구체적인 시점과 세입 목표액을 재확인한 만큼 정책 집행의 가시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음료 제조 업계의 가격 인상 압박과 소비 위축 우려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최종 정책 설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최종 세율 확정 및 세부 시행 가이드라인 발표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oway
TALK
한인기업 특별 상담
0811-9294-114

브라질, 인도네시아 산불 진화용 특수 약제 지원…
정부, 헬기 살포 등 총력 대응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일대에서 확산 중인 산불 및 토지 화재(karhutla)를 진화하기 위해 브라질로부터 특수 소화 약제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공중 및 지상에서 전방위적인 진화 작전을 펼칠 방침이다.

두둥 압두라흐만 인도네시아 정치안보조정장관은 지난 11일 중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브라질 정부로부터 산불 진화용 특수 액상 약제를 지원받았으며, 주요 피해 지역인 남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서 이미 시험 살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두둥 장관은 "브라질이 지원한 약제는 살포 시 표면에 흡착돼 불길을 신속하게 억제하는 특수 액상 물질"이라며 "이미 현장 시험을 완료한 만큼, 해당 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조속한 진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재 진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식을 총동원하고 있다. 헬리콥터를 활용한 공중 살포 작업은 물론, 현장 대원들을 직접 투입해 수동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지상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지상 및 공중 태스크포스(TF)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으며, 인공강우를 유도하는 기상조절작전을 함께 전개해 연무 확산 억제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산불로 인한 연무가 국경을 넘어 주변국으로 번지면서 외교적 긴장도 감지되고 있다. 두둥 장관은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연무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정보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기상 조절 작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화재 확산을 차단하고, 연무로 인한 국내외 대기오염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Presiden Republik Indonesia, Prabowo Subianto dan Presiden Republik Federasi Brasil, Luiz Inácio Lula da Silva menyaksikan penandatanganan dan pertukaran memorandum saling pengertian serta nota kesepahaman antara kedua negara di Istana Merdeka, Jakarta, pada Kamis, 23 Oktober 2025. (Foto: BPMI Setpres)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건의 양해각서(MOU) 및 합의각서(MOA) 서명식이 진행됐다. 2025.10.23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산불·연무 해법에 학계 자문 요청…
"마을 단위 예방과 강우가 핵심"

- 6개 주 산불 면적 600여 헥타르로 급감… "대규모 조기 진화 성과"

- 산림경찰 7만 명 증원 추진… 인접국 연무 확산엔 외교적 긴장도 고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매년 반복되는 산림·농지 화재(karhutla) 및 이로 인한 연무(Haze)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화재 진압의 최종적인 열쇠는 결국 '강우'에 있음을 짚으며, 최하위 행정 단위 중심의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을 강력히 지시했다.

대통령 비서실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12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에서 산불 대응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피해가 집중된 남수마트라주와 중부 칼리만탄주의 주지사를 비롯해 관할 군사령관(팡담), 지방경찰청장(카폴다) 등 주요 지휘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3일 공개된 발언을 통해 "연무 문제는 향후 교수진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겠으나, 결국 진화의 결정적 요인은 비와 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불길이 번진 뒤 진화에 나서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향후 산불 대책의 핵심은 학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결합해 최하위 마을 수준에서 정밀한 조기 탐지와 초기 대응을 완비하는 예방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방침도 내놓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광대한 산림 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산림 경찰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군(TNI)과 경찰(Polri)이 위탁 훈련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개혁관료제부(MENPAN-RB)에 산림경찰 7만 명 증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인력 확충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산불 피해 면적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하리얀토 국가재난방지청(BNPB) 청장의 보고에 따르면, 중부·남부·서부 칼리만탄, 남수마트라, 잠비, 리아우 등 중점 대응 6개 주의 누적 피해 면적 12만 9,899헥타르 중 99% 이상이 진화 완료되어 현재 잔여 화재 면적은 약 639헥타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중부 칼리만탄과 남수마트라를 중심으로 인공강우 작전(OMC)을 지속할 방침이지만, 짙은 연무와 시정 장애로 항공 장비 투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이번 산불로 발생한 유독성 연무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 동남아 인근 국가로 확산되며 국제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대기질 악화로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포함한 주요 지역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며 2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호흡기 감염 환자가 17만 명을 돌파하며 공중보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대해 시아간다 나오잉골란 인도네시아 정부소통청(Bakom) 청장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산불은 통제하기 어려운 기후적 요인에서 비롯된 자연 현상"이라며 "이웃 국가들이 인적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으나,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0월 12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에서 산불 대응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자카르타 정도 500주년에 'FC서울' 초청 추진…
자카르타-서울, 자매결연 40년



라노 카르노 자카르타 부지사는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정상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부시장과 만났다. (Foto.Dinas Kominfotik DKI Jakart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주 정부가 서울특별시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2027년 자카르타 정도 500주년을 기념해 한국 프로축구 K리그1의 명문 구단 'FC서울'을 현지로 초청하는 방안이 공식 제안돼 귀추가 주목된다.

라노 카르노(Rano Karno) 자카르타 부지사는 6일 서울특별시청을 방문해 정상훈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회동을 갖고, 문화·교육·도시개발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라노 부지사는 2027년 자카르타 500주년 기념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매결연 도시 간 친선 축구대회를 제안하며, 서울을 대표해 FC서울이 자카르타를 방문해 경기를 치러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초청 구상은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넘어 양 도시 시민 간의 인적 교류(people-to-people contact)를 활성화하고 유대를 공고히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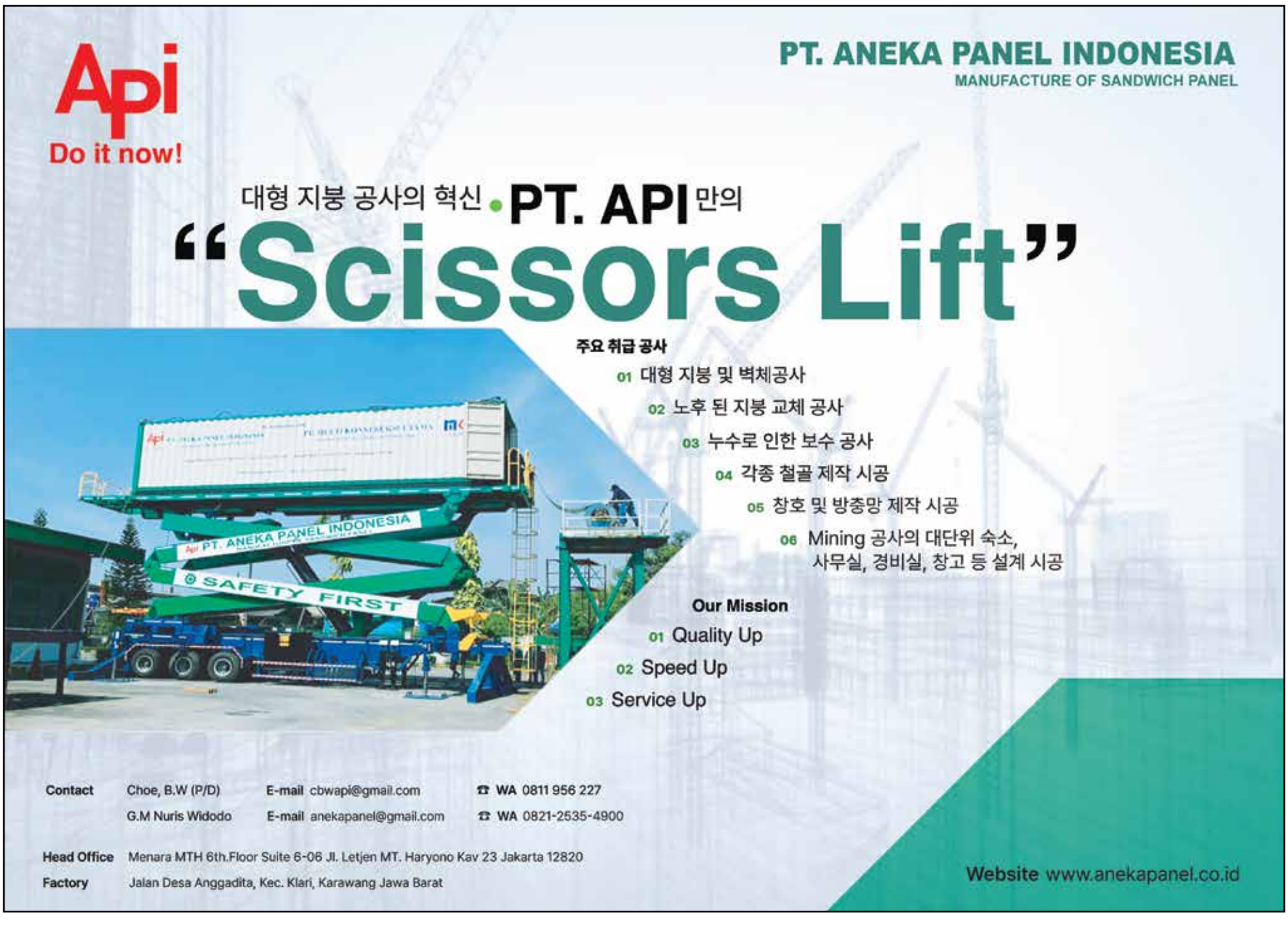
이에 정상훈 부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2027년 자카르타를 직접 방문해 50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축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세부 경기 일정과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40년 넘게 자매결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양 도시는 이날 회담에서 도시 운영 노하우와 교육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야간 시간대를 포함해 24시간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공공 인프라 정책을 소개했다.

교육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라노 부지사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해외 유학 장학 프로그램(가칭 'LPDP 자카르타')을 언급하며, 자카르타 장학생들이 서울 유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학생들이 선진 기술과 창조산업, 문화를 직접 체득하길 바란다"며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라노 부지사는 "자카르타와 서울은 경제 중심지이자 강력한 창조산업을 갖춘 아시아의 대표 메가시티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 도시의 관계가 정부 간 협력을 넘어 청년과 학생, 예술가, 기업인 등 민간 전반으로 더욱 넓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말레이시아, 인니발 산불 연무로 수도권 등 주요 지역 '휴교령' 단행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연무로 말레이시아 전역의 공기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포함한 주요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 따라 취약 계층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파들리나 시덱 말레이시아 교육부 장관은 8일 밤 성명을 통해 9일(금요일)부터 조호르, 믈라카, 느그리슴빌란, 슬랑오르 등 말레이반도 주요 주와 쿠알라룸푸르 및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파항주 롬핀 지역의 학교를 전면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파들리나 장관은 "각 주 및 지구 교육청에 대기질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 집계에 따르면 9일 오전 기준 전국 37개 지역의 대기오염지수(API)가 '건강에 해로움' 수준(101~20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API 수치가 180을 초과하는 지역의 교육 기관은 즉시 문을 닫도록 하고, 150 이상이 사흘 연속 지속될 경우 차주 월요일부터 의무 휴교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연무 사태 Kabut asap Malaysia. (Istimewa)

다툭 모흐드 아잠 아마드 교육총괄국장은 "이번 결정은 연무 악화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양디-페르투안 아공(국왕)의 당부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등교는 전면 중단됐으나 학사 일정 파행을 막기 위해 피해 지역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재택 교수·학습(PdPR)'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등 각 학교의 상황과 학생들의 접근성에 맞춰 수업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보건부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국경을 넘나드는 연무 피해가 확산되자 외교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말레이시아 차원의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차원의 공동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에게 장관급 회의 소집 추진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파당시 기습 폭우로 돌발 홍수… 3개 구 침수·주민 672명 대피

- 주택 120채 피해 및 주요 도로 단절… 인명 피해는 없어
- 재난당국, 비상 대응 돌입… 임시 대피소 운영 및 구호물자 긴급 지원
- 파당시장, 중앙정부에 제방 축조 등 하천 정비 토목 공사 촉구

[파당]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주 파당시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돌발 홍수가 발생해 대규모 주거지역이 침수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0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에 따르면, 이날 서수마트라주 파당시에 내린 기습 폭우로 쿠란지(Kuranji), 코토 탕아(Koto Tangah), 낭갈로(Nanggalo) 등 3개 구(Kecamatan) 산하 6개 동(Kelurahan) 주거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잠정 집계 결과 이번 홍수로 약 225가구, 498명의 주민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쿠란지 동 일대에서만 672명의 주민이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했다. 대피 주민들은 라파우 뭉구(Lapau Munggu) 텐트촌 및 인근 가옥(367명), 캄풍 탕아 아르 리드완(Ar Ridwan) 기도처(250명), 구오 다리 매점(55명) 등 세 곳의 임시 대피소로 분산 수용됐다.

재산 피해도 속출했다. BNPB는 주택 1채가 완파되고 4채가 반파됐으며, 약 120채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쿠란지구 구오 지역의 수도사업소(PDAM) 인근 도로가 끊기면서 일부 피해 지역으로의 접근로가 차단되는 등 교통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합동 대응팀은 즉각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당시 재난관리청(BPBD)은 도시락 500개와 담요 100장을 현장에 긴급 배부했으며, 파당시 사회부도 코토 탕아 및 쿠란지 지역을 중심으로 라면 23박스, 아동용 식품 및 의류, 매트리스 등을 신속히 전달했다. 또한, 주민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지역에 250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공식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재민 중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와 필수 생필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베르톤 수아르 펠리타 판자이탄 BNPB 재난데이터·정보·홍보센터장 직무대행은 "재해 취약 지역 거주민들은 추가 침수 가능성에 항시 대비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즉각 대피해야 한다"며 재난 당국의 공식 안내 지침을 철저히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들리 암란 파당시장은 피해 지역을 점검하며 "과거 2025년 11월에도 수해를 입었던 상습 침수 구역"이라며 "이번 강우로 인한 피해는 과거보다 덜하지만,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방 축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토목 공사 착공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Gempa M 7.3 파당 앞바다 섬 2023.4.25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인도네시아 주택개발협회, 공공분양주택 가격 상한 5억 루피아로 상향 건의… 대출 금리 6~8% 제안



보조 주택 rumah subsidi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 주택개발협회(Himperra)가 도심 인근의 서민 주거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상한을 최대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KPR) 금리 체계의 개편과 주택 인허가 절차의 중앙 일원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아리 트리 프property(Ari Tri Priyono) Himperra 총회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저소득층(MBR)의 구매력 약화,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핵심지 인근의 적정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Himperra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5억 루피아 이하 공공분양주택에는 6~8%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저소득층 대상 주택금융유동성지원제도(FLPP)의 5% 고정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아리 총회장은 가격 상한이 현실화되면 개발업체가 도심 직주근접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엄격한 가격 상한선으로 인해 도심 외곽에만 부지가 조성되면서 청년 근로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리 체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구매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imperra는 전체 상환 기간 대신 최초 10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취약계층 보호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Himperra는 서부자바주 등 일부 지방정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개발업체의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주택 인허가 업무를 신설된 주택·주거지역부(PKP)의 직접 통제 아래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이 맞물려야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협회는 연간 35만 가구 규모의 FLPP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자력주택지원보조금(BSPS) 등 기존 집수리 사업 예산(약 10만 가구 규모)을 FLPP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최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2,000만 루피아의 계약금 및 초기 분양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Rakernas)를 통해 수렴된 제안서 일체는 업계 의견과 함께 마루아라르 시라잇(Maruarar Sirait) 주택·주거지역부 장관에게 전달되어 본격적인 정책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자카르타 주정부, MRT 동서 회랑 남부 땅그랑 연장 추진… 초기 사업 및 기지 건설이 관건

- 프라모노 주지사, "로로탄 차량기지 및 1·2단계 정상 추진이 광역 확장 전제 조건"

- PT MRT 자카르타, 민관협력(KPBU) 방식 검토… 르박 불루스~세르퐁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 목표



자카르타 MRT 2A단계 프로젝트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Pemprov DKI Jakarta)

자카르타 특별주정부(Pemprov DKI)가 자카르타 대중급행철도(MRT) 동서 회랑 노선을 반텐주 남부 땅그랑(Tangsel)까지 연장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해당 구상의 본격적인 실현 여부는 북부 자카르타 로로탄(Rorotan) 차량기지 건설 완료를 비롯한 MRT 동서 노선 초기 단계 사업의 순조로운 진척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자카르타 주지사는 12일 자카르타 시청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카르타 주정부 간의 MRT 동서 횡단 노선 건설 협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현재 노선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담 사업 추진단 구성 역시 완료된 상태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배후 위성도시로의 MRT 노선망 확장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본선 1·2단계 구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꼽았다. 그는 "1·2단계 구간과 향후 로로탄 차량기지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동서 MRT 노선이 땅그랑을 넘어 남부 땅그랑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는 구상 또한 신의 뜻에 따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철도망 확충에 발맞춰 수도권 배후 도시를 잇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광역버스 체계인 '트랜스자보데타벡(Transjabodetabek)'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연계 교통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트랜스자보데타벡은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당초 계획은 일평균 2,000명 수준이었으나, 현재 보고르(Bogor) 방면 노선 이용객은 일평균 1만 명에 이른다"며 "공항 방면 노선 이용객 또한 하루 평균 약 7,000명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광역 교통망 정비를 통해 자카르타와 인접 배후 도시 주민 간의 이동성 연계가 한층 강화되고, 전반적인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철도 운영사인 PT MRT 자카르타(Perseroda)는 민간 개발업체들과 협력하여 남부 땅그랑 세르퐁(Serpong) 및 땅그랑 발라라자(Balaraja) 방면으로 노선을 확장하는 구체적인 실무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광역 철도망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재정(APBD) 투입을 최소화하고 민관협력사업(KPBU) 등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재원 조달 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파르차드 마흐푸드(Farchad Mahfud) PT MRT 자카르타 사업개발이사는 서면 성명을 통해 "남부 땅그랑 노선 착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거나 최소한 민관협력사업(KPBU) 방식을 적용하여 노선을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초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파르차드 이사는 타 지자체 연계 사업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남부 땅그랑 노선과 같은 광역 철도망 개발 사업은 단순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넘어, 자카르타 관내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회적·재정적·제도적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면서 "타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진입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사회적 특성을 조만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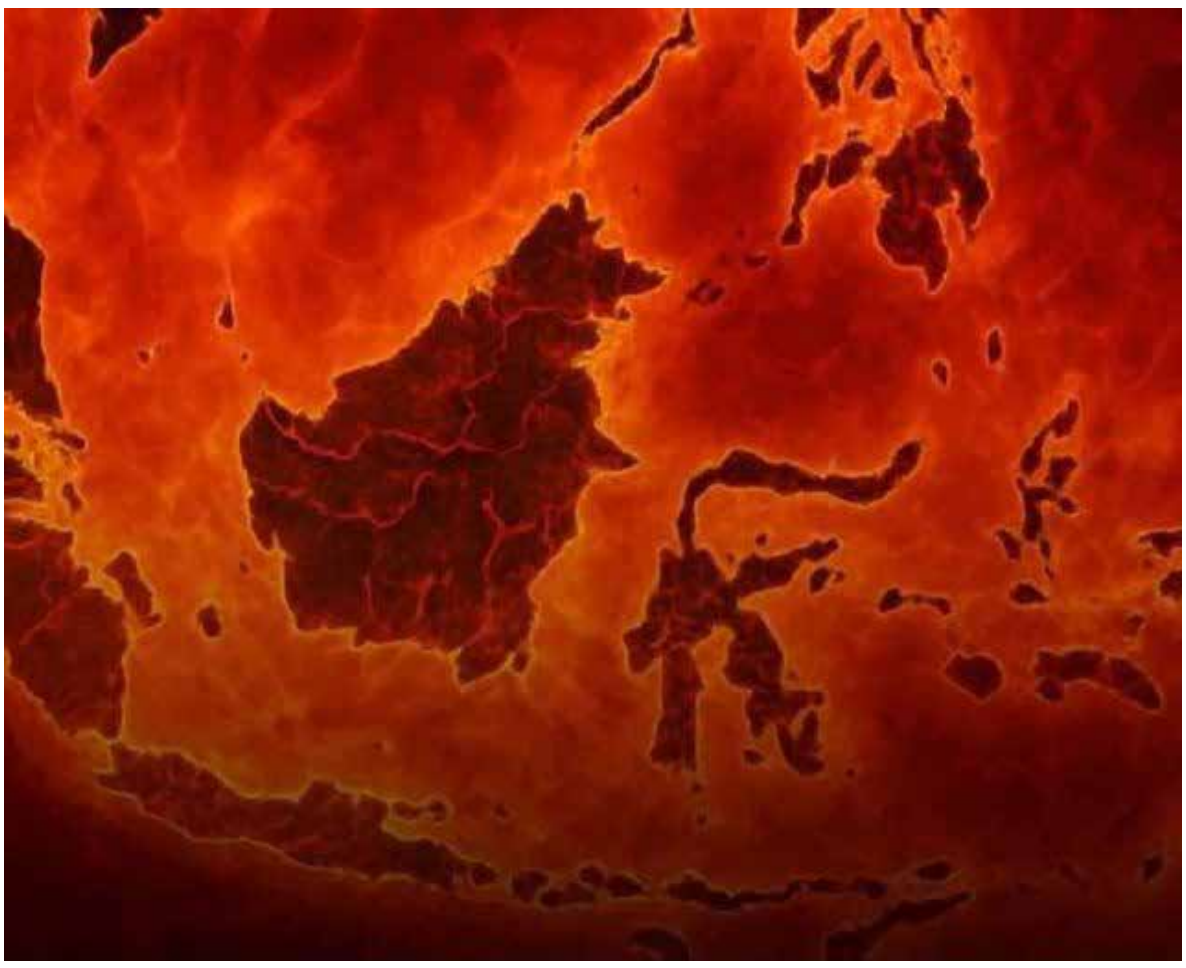
현재 추진 중인 르박 불루스(Lebak Bulus)~세르퐁 구간 타당성 조사(FS)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시나르마스 랜드(Sinarmas Land)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잠정 구상에 따르면 르박 불루스~세르퐁 연장선은 총연장 22km 규모로, 10개 역사와 1개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될 경우 자카르타에서 남부 땅그랑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약 36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파르차드 이사는 "정거장 위치와 구체적인 통과 노선에 대한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최종 확정된 노선으로 볼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MRT 자카르타는 큼방안(Kembangan)~발라라자를 잇는 동서 횡단 연장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7개 민간 개발사와 협력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존 도심 구간인 남북 횡단 MRT 2A단계 분다란 HI(Bundaran HI)~코타(Kota) 구간 건설 공사 역시 순항 중이며, 탐린(Thamrin)~모나스(Monas) 구간은 2027년, 코타 역 구간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니, 연무 사태 항의한 말레이·싱가포르에 “평소엔 산소도 보내지 않느냐” 반박



인도네시아 기상청(BMKG)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강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여 강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산불 및 산림·토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6.7.29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의 산불 및 산림 화재로 발생한 연무(Haze)가 국경을 넘어 번지면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상호 이해를 촉구하며 독특한 해명을 내놓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공보청(Bakom RI)의 샤간다 나잉골란 청장은 지난 10일 자카르타 국립복원력연구원(Lemhannas)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인접국들의 대기질 악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샤간다 청장은 연무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양국 관계와 환경 문제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이 역내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를 상기시켰다.

샤간다 청장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매우 원만하다”며 “우리는 국경을 넘어 연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막대한 양의 산소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마시는 산소 역시 인도네시아의 산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해 인재(人災)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주변국들이 이번 사태가 인간의 실수를 넘어선(beyond human error), 철저한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샤간다 청장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외교장관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산불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도록 조치했다.

그는 양국 장관급 회담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이틀밖에 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산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산불, 팔렘방-인드랄라야 고속도로 턱밑까지 번져… 당국 “통행 안전 확보”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에서 발생한 산림 및 임야 화재(karhutla)가 주요 고속도로 인근까지 번졌으나,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전면 진화됐다. 도로 관리 당국은 도로변 화재와 연무 발생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오후 8시 25분경, 남수마트라주 오간 일리르군에 위치한 팔렘방-인드랄라야(Palindra·팔린드라) 고속도로 B구간 6km+200m 지점 인근 임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고속도로 본선에서 불과 약 3미터 떨어진 지점의 마른 풀과 수목을 집어삼키며 거센 화염과 짙은 연기를 내뿜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이에 오간 일리르 경찰서 대책반과 교통경찰과, 페물루탄 경찰지서, 남수마트라 지방경찰청 파견 인력, 산불진화대 ‘망갈라 아그니’로 구성된 합동 진화팀이 긴급 투입됐다. 현장에는 기동순찰대 소속 방수포 차량(AWC)이 투입돼 지상 진화팀과 함께 발화 지점에 직접 방수를 실시했다.

현장을 직접 지휘한 리즈카 아프리안티 오간 일리르 경찰서장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11일 오전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고 밝혔다. 리즈카 서장은 “합동 진화팀의 노력으로 화재가 전면 진화됐으며 현재는 재발화를 막기 위한 냉각 작업과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토지 소각 행위를 삼가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고속도로 운영사인 국영 PT 후타마 카르야(HK)는 화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도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리프 예리 크리스난토 후타마 카르야 남부 수마트라 지역본부장은 11일 “현재까지 짙은 연무가 고속도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으며, 팔렘방-인드랄라야 고속도로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확인했다.

공사 측은 도로전광표지(VMS), 소셜미디어, 톨게이트 및 휴게소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안전 수칙을 전파하고 있으며, 경찰 및 지역재난관리청(BPBD), 소방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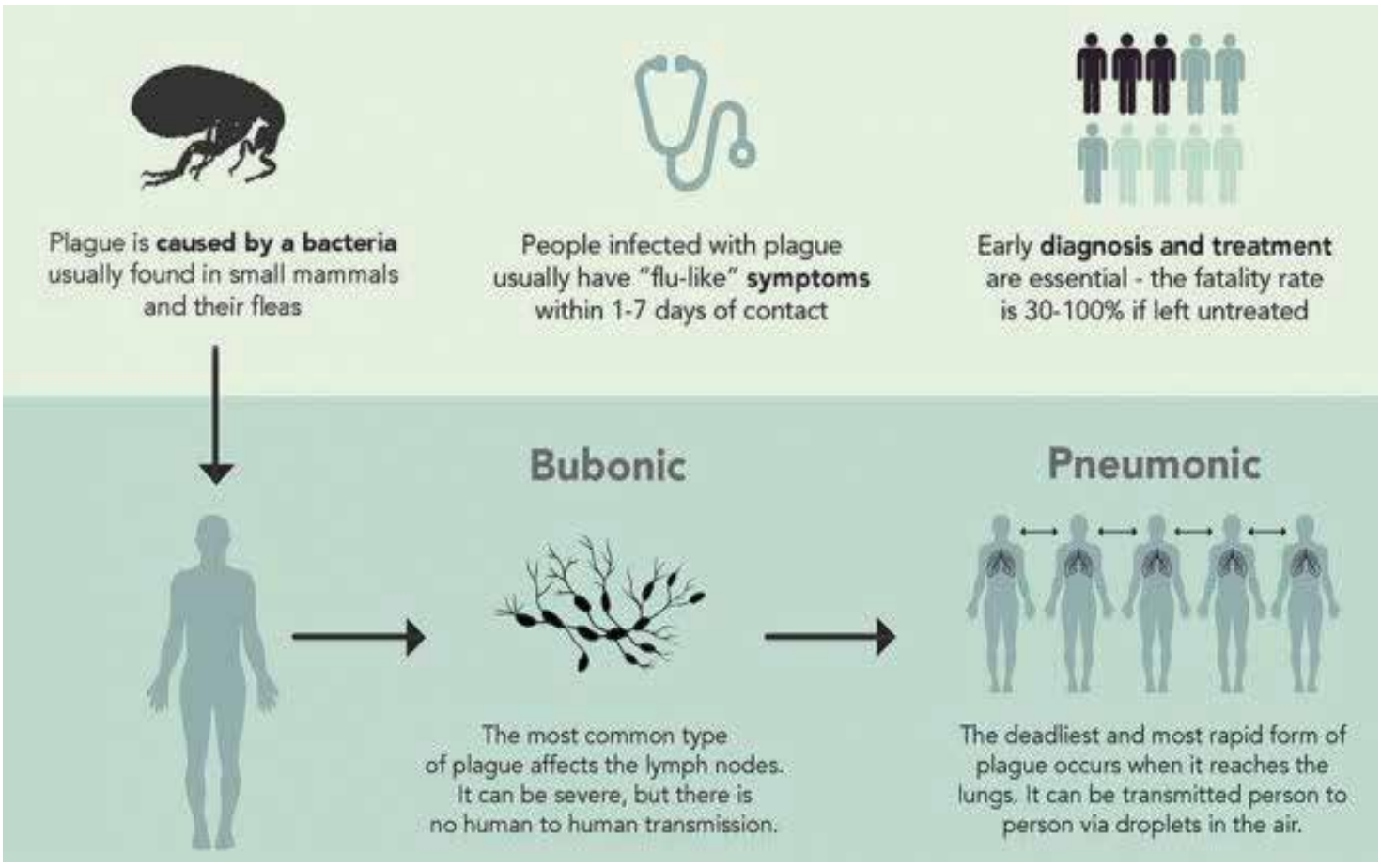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람풍주 동람풍 소재 와이 캄바스 국립공원(TNWK)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21/8/2026) (Foto: Istimewa)

한편, 남수마트라 지역 전역의 산불 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남수마트라 BPBD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관내에서 총 3,311곳의 열점(핫스폿)이 감지됐다.

지역별로는 오간 코메링 일리르(OKI)군이 2,063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시 바뉴아신(643곳), 무아라 에님(200곳), 바뉴아신(195곳), 오간 일리르(88곳) 등이 뒤를 이었다. 당국은 대중의 건강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감시 순찰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러시아 연구원 '원인 불명 폐렴' 사망에 입국 검역 강화… 페스트 연구소 사고 여파 주시



흑사병 인포그래픽 Infografis penyakit pes.(Dok. WHO)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이 러시아의 한 생물학 연구소 연구원이 원인 불명의 중증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의 검역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소재 페스트(흑사병) 대항 연구소 소속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28)가 중증 폐렴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일 숨졌다.

시필로바는 지난달 25일 연구실에서 페스트 유발균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로 추정되는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다 시험관이 깨지는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틀 뒤 급격한 증상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러시아 보건당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은 공식 사인을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발표했으며, 현재 접촉자 약 200명을 격리 및 관찰 조치한 상태다.

사망자가 고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핵심 연구기관 소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국 보건당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kes) 통신·공공정보국 아지 무하와르만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황의 진행 경로와 위험 요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건정보사이트(EIS)나 국제보건규칙 국가연락체계(IHR NFP)를 통해 접수된 공식 경보는 아직 없으나,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리 국제공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전역의 주요 국제선 공항과 항만 검역소의 감시망이 즉각 격상됐다. 검역 당국은 자체 검역 시스템인 '올 인도네시아-사투세핫 건강 패스(SSHP)'를 가동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를 철저히 대조·분석하고 있다.

입국장에서는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질환 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페스트 등 고위험 감염병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공항 의료진을 통해 감염병 전문 지정 병원으로 즉시 격리 이송할 방침이다.

아지 국장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위험 기반 평가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 역시 공식 발표되는 국내외 보건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자카르타 정도 500주년에 'FC서울' 초청 추진… 자카르타-서울, 자매결연 40년



라노 카르노 자카르타 부지사는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정상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부시장과 만났다.
(Foto: Dinas Kominfotik DKI Jakart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주 정부가 서울특별시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2027년 자카르타 정도 500주년을 기념해 한국 프로축구 K리그1의 명문 구단 'FC서울'을 현지로 초청하는 방안이 공식 제안돼 귀추가 주목된다.

라노 카르노(Rano Karno) 자카르타 부지사는 6일 서울특별시청을 방문해 정상훈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회동을 갖고, 문화·교육·도시개발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라노 부지사는 2027년 자카르타 500주년 기념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매결연 도시 간 친선 축구대회를 제안하며, 서울을 대표해 FC서울이 자카르타를 방문해 경기를 치러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초청 구상은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넘어 양 도시 시민 간의 인적 교류(people-to-people contact)를 활성화하고 유대를 공고히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정상훈 부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2027년 자카르타를 직접 방문해 50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축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세부 경기 일정과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40년 넘게 자매결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양 도시는 이날 회담에서 도시 운영 노하우와 교육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야간 시간대를 포함해 24시간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공공 인프라 정책을 소개했다. 교육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라노 부지사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해외 유학 장학 프로그램(가칭 'LPDP 자카르타')을 언급하며, 자카르타 장학생들이 서울 유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학생들이 선진 기술과 창조산업, 문화를 직접 체득하길 바란다"며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라노 부지사는 "자카르타와 서울은 경제 중심지이자 강력한 창조산업을 갖춘 아시아의 대표 메가시티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 도시의 관계가 정부 간 협력을 넘어 청년과 학생, 예술가, 기업인 등 민간 전반으로 더욱 넓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경찰청, 대중 신뢰도 71% 달성…
새 슬로건 앞세워 '81%' 목표



와휴 하디닝랏 인도네시아 경찰청 차장(경무총감)

인도네시아 경찰청(Polri)이 대중 신뢰도 71%를 달성한 가운데, 새로운 치안 슬로건 도입과 현장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통해 이를 8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와휴 하디닝랏 인도네시아 경찰청 차장(경무총감)은 8일 배포된 경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71%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수유디 아리오 세토 경찰청장(치안총감)이 새롭게 제시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Polisi Bersama Masyarakat)'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유대를 공고히 해 신뢰도를 81%까지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기존 표어였던 '프레시시(Presisi·정밀)'에서 대민 접점을 강화한 새 표어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대폭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민 치안의 최일선 기관인 지구대(Polsek)의 인력을 증원하고 현장 대응력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0 긴급 신고 전화' 접수 시 경찰관이 10초 이내에 응답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속 대응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사법 집행 분야에서는 시민 일상과 경제 활동을 침해하는 고질적 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한 해 동안 기업 피해 관련 고발 사건 1,281건 중 915건을 해결(해결률 71.43%)했다. 또한 조직폭력 범죄 4만 1,873건을 처리해 피의자 5만 5,941명을 입건(2만 9,197건 종결)했으며, 불법 갈취 및 공갈·협박 사건은 1만 2,015건을 접수해 1만 6,096명을 입건하고 8,378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전체 사건 해결률은 2024년 68%, 2025년 70%에 이어 2026년 71.47%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와휴 차장은 "법적 안정성 확보와 조직폭력 척결은 시민과 기업의 안전한 경제 활동 및 국가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5일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공식 슬로건으로 공표한 바 있다. 조니 에디존 이시르 경찰청 홍보부장(치안감)은 "이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찰관이 일선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지침"이라며 "국민의 비판과 제언을 치안 서비스 개선의 계기로 삼아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

군 관사 단지 내 온라인 도박장 급습… 운영 요원 11명 검거

현역 육군 중령 소유 주택 임대돼 파장… 군 당국 "연루 확인 시 엄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군부대 관사 단지 내 주택이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 본거지로 쓰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기습 단속을 벌이고 운영 요원 11명을 검거했다. 특히 해당 주택이 현역 육군 장교 소유의 관사로 확인되면서 군 안팎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7일(현지 시간) 현지 사법 당국과 외신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경 동자카르타 파사르 레보(Pasar Rebo) 구 치잔퉁(Cijantung)에 위치한 육군 관사 단지(KPAD) 내 한 주택을 전격 급습했다.

경찰은 주택 내 수상한 움직임이 잦다는 인근 주민들의 첩보를 입수하고 작전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온라인 도박 운영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11명이 체포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PC 본체 32대와 휴대전화 14대, 신분증(KTP) 9장 등 다수의 증거품이 압수됐다. 당시 컴퓨터 수십 대가 설치된 방 안에서 피의자들이 모여 있던 단속 현장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제1수도수비통합사령부 정보과장 육군 중령 소유의 관사로 밝혀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주택은 피의자들에게 임대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법 당국은 주택 소유권과 범죄 행위 가담 혐의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집주인인 아르만 중령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이번 작전은 관할 지구대를 거치지 않고 자카르타 수도권 지방경찰청(Polda Metro Jaya) 특수수사팀 주도로 은밀히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관할 파사르 레보 지구대 차원의 작전은 아니었다"며 "체포된 피의자들과 압수품 일체는 상급 기관으로 압송돼 조직 내 역할 규명 등을 위한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도 이번 사태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마룰리 시만준탁 육군참모총장은 7일 대통령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군 관사가 불법 도박 본거지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군 구성원의 위법 행위나 연루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치풀라랑 고속도로서 차량 15대 연쇄 추돌… 트럭 제동 불량이 원인 추정

-전통문화 공연, 21가지 체험 및 전시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 널리 알려
- 10월 2일, 교내 곳곳에서 한국 문화 공연 · 전시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통놀이 · 음식 · 공예 등 21개 체험 마당으로 한국 문화의 매력 공유



서자바주 뿌르와까르따군 치풀라랑(Cipularang) 유료도로 자카르타 방면 KM 91 구간에서 차량 1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 Oktober 2026. (Foto Polda Jabar)

7일 오후 12시 45분경,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뿌르와까르따군 치풀라랑(Cipularang) 유료도로 자카르타 방면 KM 91 구간에서 차량 1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 구간은 인근 광고판 보수 공사 여파로 차량 흐름이 서행 중이었다. 이때 반둥에서 자카르타 방향으로 달리던 트랙터 트럭이 감속하지 못한 채 앞선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로 이어졌다. 경찰은 해당 대형 트럭의 제동 장치 이상을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일부 경상자들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여파로 자카르타 방면 전 차선이 한때 전면 통제되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현장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도로관리당국(자사 마르가)의 견인차 및 구급차가 급파되어 사고 차량 이동과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차량 상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학생과 동포 그리고 학교가 함께하는 'Korean Day' 축제 개최

- 전통문화 공연, 21가지 체험 및 전시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 널리 알려
- 10월 2일, 교내 곳곳에서 한국 문화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통놀이·음식·공예 등 21개 체험 마당으로 한국 문화의 매력 공유



JIKS,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나누는 2026 코리안데이(Korean Day) 성황리에 개최. 사진제공 JIKS

자카르타한국학교(JIKS)는 지난 10월 2일(금),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및 한인동포와 현지 학교 학생들이 함께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는 「2026 Korean Day」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동포사회와 현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 학교 전체가 한국 문화 체험장으로… 21개 다채로운 체험 마당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나래홀, 마루관, 디딤관, 운동장 등 교내 여러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학년군별 세 차례 체험 마당에 참여하며 화전 만들기, 전통 부채 만들기, 전통 의상 체험, 가마 타기, 투호와 제기차기 등 한국의 생활문화와 놀이를 폭넓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떡메치기와 전통 가옥 체험, 김장하기, 한국 전통음식, 독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 문화를 보고, 만들고, 맛보며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기념식과 전시·공연으로 함께 나누는 한국 문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JIKS Korean Festival」 기념식이 편성됐다. 독도 플래시몹, 부채춤, 설북춤, 앙꿀룽으로 연주하는 민요, K-POP 댄스, 태극기 매직쇼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한국의 전통을 엿보고 문화를 경험했다. 이와 함께 전통 공예품, 전통 도자기, 한국 식물 및 열매, 한글 캘리그래피와 민화 등의 전시를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에는 전통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해 방문객이 자유롭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JIKS,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나누는 2026 코리안데이(Korean Day)에서 전통혼례

■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만든 참여형 축제

학교는 학년별 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학부모 도우미와 교직원이 행사 준비 및 진행을 함께 맡도록 계획했다. 또한 현지 학교 방문객과 유치원생, 동포 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체험과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Korean Day는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돌아보는 한편, 한국 문화를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서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포사회부)

인도네시아에 피어난 한국문학의 향기… UPI 한국어교육학과, 김애란 작가 초청 및 번역 워크숍 성료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으로 번역 수업부터 작가 강연, 비평 워크숍·에세이 공모전까지 다채로운 결실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 어문교육학부 한국어교육학과가 한국문학번역원의 '2026 해외 한국학대학 번역교육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한국문학 번역 및 학술 워크숍, 에세이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 『달려라, 아비!』를 중심으로,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문학을 통한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 김애란 작가 초청 특별강연… "문학과 삶의 교차점 나누다"

지난 8월 12일, UPI 어문교육학부(FPBS) 강당에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특별강연을 통해 김애란 작가는 인도네시아 현지 독자 및 UPI 한국어교육과 학생들과 뜻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김 작가는 출간 20주년을 맞은 『달려라, 아비!』의 집필 배경에 대해 "부모님과의 개인적 경험과 20대 초반 서울에서의 타향살이 기억에서 시작된 각별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작품 이면에 담긴 정서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금 마음껏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빈 벽이 있다면 무엇을 적겠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작가는 "바람이 분다"라고 답하며, "바람을 느끼는 순간 살아있음을 실감한다"는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 정교한 번역 수업과 비판적 읽기… 학술 워크숍으로 결실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번역 수업에서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5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원문의 문화적 뉘앙스와 가치를 살리는 포커스 그룹 토론(FGD) 방식의 정교한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9월 9일 열린 학술 워크숍 및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문학을 통한 사회·문화적 해석의 장이 펼쳐졌다. 율리아네타 UPI 어문교육학부 부학장은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설화 「바왕 메라 바왕 푸티」와 한국의 「콩쥐팥쥐」 등 양국의 유사한 모티프를 비교하며, "문학은 양방향으로 열린 창으로서 상대 문화는 물론 자국 문화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매개"임을 강조했다.

또한 UPI 한국어문화교육원(KLCEC) 이종호 원장은 소설 속 1980년대 한국의 일상 풍경에 담긴 문화적 기억과 시대상을 짚으며, 번역가는 단순한 어휘 전환을 넘어 문화적 기억과 감정의 층위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개최된 『달려라, 아비!』 에세이 공모전에서는 기타 우타미(Gita Utami) 씨가 「계속 달리는 아버지를 위한 선글라스: 용서의 의미 읽기」로 1위를 차지했으며, 수상자들은 작품의 주제와 인물을 다각도로 해석하며 뛰어난 문학적 감수성과 비평 능력을 보여 주었다.

사업 책임자인 리사 트리아리산티(Risa Triarisanti) UPI 한국어교육과 학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젊은 번역가와 학술 인재를 양성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문학과 번역을 통한 양국의 인문학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아샨티 위디아나(Ashanti Widyana, UPI 한국어 교육학과 교수)



김애란 작가님이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학생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 PBK UPI)



'A Literary Appreciation of 달려라, 아비! (Run, Daddy, Run!) by Kim Ae-ran' 포스터 (출처 PBK UPI)


새마을재단 인도네시아사무소는 한국계 기업 근로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지원형 새마을연수' 실시. 2026.10.11


한국어교육과 학과장 Risa Triarisanti 박사와 '달려라, 아비'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들 (출처 PBK UPI)



율리아네타 교수님 (출처 PBK UPI)

새마을재단,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기업 대상 '2026 기업지원형 새마을연수' 성료

족자카르타 및 중부자바 지역 근로자 250여 명 대상 맞춤형 교육 진행
숙박형 집체교육과 현장 방문 교육 병행… 직무역량 강화 및 소통 중심 조직문화 구축 기여

(족자=한인포스트) 새마을재단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사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새마을재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특별주 및 중부자바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기업 근로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지원형 새마을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업지원형 새마을연수'는 현지 한국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국적 기업문화와 현지 문화 간의 간극을 좁히고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되는 핵심 교육사업이다. 특히 올해 연수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생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1박 2일 숙박형 연수'와 전문 강사진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방문 교육'의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기획·운영되어 현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새마을재단 인도네시아사무소는 한국계 기업 근로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지원형 새마을연수'를 마치고 단체 사진. 2026.10.11

숙박형 연수의 포문을 연 1차 교육은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족자카르타 소재 '그리야 페르사다(Griya Persada)' 호텔에서 진행됐다. 관내 3개 한국계 기업 소속 근로자 5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다문화 근무환경에서의 의사소통과 갈등관리'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교육생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실무 기법을 학습했다. 아울러 실내 강의에 그치지 않고 팀 빌딩 중심의 아웃바운드(Outbound)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참가자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동료애를 다지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및 협업 과정을 체득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새마을재단은 9월 17일, 생산 일정 등으로 집체교육 참가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가발 제조업체 'PT Jihe Jiwa Abadi'를 직접 방문, 근로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을 단행했다. '직장 내 책임감과 규율의 실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방문 교육은 현지 근로자들의 주인의식과 업무 몰입도를 고취하고, 체계적인 근태 및 공정 규율 준수를 통해 실질적인 공장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연수 운영 일정 또한 체계적으로 이어졌다. 올해 숙박형 연수는 참가 수요를 반영해 총 3차수에 걸쳐 분산 개최됐다. 9월 12~13일 1차 연수(50명)에 이어,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차 연수에는 52명이 수료했다. 마지막 3차 연수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50명의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내실 있게 마무리됐다. 이로써 현장 방문 교육 인원을 포함해 총 250여 명의 현지 근로자가 이번 새마을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홍승훈 새마을재단 인도네시아사무소장은 "이번 연수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 현장에서 상호 존중과 원활한 소통, 유기적인 협업으로 발현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의식 개혁은 곧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재단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현대 산업 현장에 접목한 기업 지원형 연수가 현지 고용 안정과 노사 화합에 기여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단 측은 향후에도 주재국 내 한국계 기업들과의 긴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장의 세부적인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산업 맞춤형 직무·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동포사회부/ 편집부 종합)

인니 롬복 길리 섬서 30대 韓 여성 실종 엿새째…

당국, 조류 타고 수색범위 확대

- 스노클링 중 일행 이탈 후 연락 두절… 바다거북 관찰 위해 홀로 이동한 듯
- 마타람 수색구조청 · 현지 경찰 고속단정 투입, 승기기 · 렘바르 해역까지 정밀 수색
- 현지 한인회 "시간 지날수록 난항… 오늘 내 발견되길 간절히 바라" 애타는 심경 전해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해양 휴양지인 롬복 인근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 섬 해역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던 30대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실종된 지 엿새째를 맞았다. 현지 당국과 구조대가 수색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상과 조류 등으로 인해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실종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색 당국은 수색 반경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마타람 SAR 대원들은 해류와 조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종자가 길리 트라왕안 해안가를 벗어나 휩쓸려 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색대는 기존 실종 지점을 넘어 남쪽의 승기기(Senggigi) 해역부터 렘바르(Lembar) 항 인근 해역까지 범위를 넓혀 해상 수색을 전개하고 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지로 달려온 C씨의 부모 역시 수색정에 동승해 당국과 함께 바다로 나가 자녀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망연자실한 부모의 모습에 현장 구조대원들과 동포 사회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태순 롬복 한인회장은 11일(일) 오전 '한인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박 회장은 "마타람 SAR 대원들과 실종자 부모가 조류 방향을 따라 승기기에서 렘바르 쪽으로 수색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며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오늘 아침에도 실종자 부모님과 수색대원들이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바다로 출항했다"며 "바다의 특성상 시간이 더 지체되면 수색 작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오늘이라도 반드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6일 화요일 오후 북롬복 프메낭(Pemenang) 면 길리 인다(Gili Indah) 마을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관광객 C(31·여) 씨가 실종됐다.

사고 당일 C씨는 인근 식당 앞 해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 스노클링을 즐기던 중이었다. 현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종 사건은 낮 12시 30분(중부 인도네시아 표준시·WITA)경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해당 해역의 대표적인 명물인 야생 바다거북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위해 일행 무리와 떨어져 홀로 수영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약 1시간 30분이 흐른 오후 2시경, 일행들이 물놀이를 마치고 해변으로 복귀했을 당시 C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휴대전화 등 통신 연락마저 완전히 두절되면서 일행은 곧바로 현지 구조 당국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도네시아 방살(Bangsal) 수색구조대는 즉각 고속단정(Sea Rider)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구조대는 C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초기 정밀 수색을 개시했으나, 안타깝게도 사고 발생 5일이 지난 11일 오전까지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길리 트라왕안은 수려한 수중 환경으로 전 세계 다이버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나, 특정 구역은 조류가 강하고 물길이 빠르게 바뀌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는 수색 당국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수색 작업 지원 및 현장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동포사회부/ 편집부)

제107회 제주 전국체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
“재외동포 종합 2위 정조준”

- 164명 역대급 대규모 선수단 파견, 8개 종목서 메달 사냥 나서
- 다문화가정 선수 11명 전격 합류… ‘민간 스포츠 외교관’ 활약 기대
- 김태화 회장 “임기 마지막 체전, 가장 열렬한 팬으로 끝까지 함께할 것”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10월 7일(수)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강당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단체사진.

[자카르타]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가 모국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사표를 던지고 ‘재외동포 부문 종합 2위’를 향한 힘찬 닻을 올렸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김태화)는 지난 7일(수) 오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강당에서 주요 내외빈과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체전은 오는 10월 16일(금)부터 22일(목)까지 일주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 세계 18개국 1,500여 명의 재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하는 가운데,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은 총 164명(선수 56명, 경기임원 38명, 본부임원 25명, 참관단 45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해 전체 참가국 중에서도 최상위권 규모를 과시했다.

제5대 김태화 회장을 필두로 양영연 명예회장이 단장을, 김희익 명예고문이 기수를 맡은 이번 선수단은 검도, 골프, 볼링, 스쿼시,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등 총 8개 종목에 출전한다. 특히 탄탄한 전력을 갖춘 축구(18명)와 전통적 강세 종목인 볼링(12명), 태권도 등을 앞세워 종합 2위 달성을 노린다.

이번 선수단 구성에는 동포 사회의 포용과 연대를 상징하는 각별한 의미도 더해졌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다문화가정 선수 및 임원 11명(태권도 선수 6명·경기임원 1명, 축구 선수 4명)이 대한체육회의 재외동포 참가 자격 심사와 대사관 추천을 거쳐 정식으로 합류했다. 이는 단순한 체육 교류를 넘어 양국 간 우호 증진과 한인 사회 통합을 이끄는 민간 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는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회장, 이정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장, 신기엽·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명예회장, 이지완 수석부회장, 김경국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재단 이사장, 김주철 명예고문 등 한인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선수단의 건승을 기원했다.

김태화 회장은 개회사에서 “체육회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인 사회와 생업 속에서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한 선수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임기 중 마지막 체전이자 체육회를 창립하신 양영연 명예회장님이 단장으로 함께해 더욱 각별하다. 가장 열렬한 팬이 되어 끝까지 응원할 테니 동료를 믿고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선수단을 대표해 출정사를 전한 이강현 단장 대리(코참 회장)는 “올해 목표는 당당히 2위다. 목표는 크게 잡고 변명은 작게 하겠다. 이번 제주에서 ‘재주’ 한번 제대로 부려보자”는 재치 있는 발언으로 결전의 의지를 북돋웠다.

이어 윤순구 대사는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최상위권 규모로 성장한 선수단의 위상과 노고를 치하했으며, 이지완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2010년 창립 이래 15년간 이어진 체육회의 성장과 최근 5년간의 우수한 성과를 조명하며 힘찬 격려를 보냈다.

한인 사회의 뜨거운 응원과 결의 속에 출정식을 마친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은 결전지인 제주로 이동해 7일간의 메달 레이스에 돌입한다. 대회 종료 후 선수단은 오는 12월 3일 자카르타 리츠칼튼 메가 꾸닝안 호텔에서 공식 해단식을 열고 제107회 제주 전국체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포사회부/한인뉴스 제공)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왜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가 되었나?

JIKS 11 하예인

지난 4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기존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두 나라는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26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양국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에너지, 문화,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 문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왜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가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규모와 ASEAN에서의 역할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 국가이며, ASEAN에서도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를 ASEAN의 핵심 협력국이자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게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인도네시아라는 한 국가와의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ASEAN과의 관계를 더욱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동남아시아와 협력할 때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연결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ASEAN 및 지역·국제 문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협력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년 정상회담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약 2,3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교역액을 다시 3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력 분야가 과거의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기차와 배터리, 핵심 광물, 인프라, 도시 개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이 새로운 협력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제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그만큼 넓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일까?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양국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비롯한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 기술 및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양국은 2026년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조성과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국부펀드인 다난타라를 활용해 핵심 광물, 인프라, AI,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즉,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나라가 아니라 산업과 기술 발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인 셈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안보와 방위산업이다. 양국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비롯해 방산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2026년 정상회담에서도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공동개발과 기술협력, 군사 교류가 이루어지면 두 나라의 장기적인 신뢰와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국 관계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기술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6.4.1.)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다. 사람과 문화의 교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K-pop과 한국 드라마, 음식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양국은 2026년 정상회담에서 문화·창조산업과 더불어 교육 및 인적 교류도 중요한 협력 분야로 다루었다.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인도네시아인과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두 나라의 교류는 정부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에게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에 인도네시아는 ASEAN의 핵심 국가이자 거대한 시장이며,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제협력국이다. 인도네시아에 한국은 산업 및 기술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경제 파트너이자 첨단기술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국가다. 여기에 문화와 교육, 인적 교류가 더해지면서 양국 관계는 점점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026년 양국이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양국은 정치·안보, 경제·산업, 첨단기술·에너지,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만들어져 가는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두 나라의 관계가 이제 경제나 문화의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성장, 기술과 미래 산업까지 함께 고민하는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에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두 나라가 함께한다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2026년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섬과 섬을 잇는 배, 안전도 함께 이어지고 있을까?

Raffles 10 하여진

지난 4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기존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두 나라는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26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양국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에너지, 문화,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 문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2026년 9월 13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수라바야를 출발해 남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으로 향하던 여객선 'KM Virgo Transport 8'이 자바해에서 전복돼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은 기상 악화 속에서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뒤 전복됐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선박에는 승객 213명과 승무원 30명 등 총 243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을 비롯해 해군과 여러 구조선이 수색에 나섰다. 사고 초기에는 많은 승객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Basarnas가 발표한 9월 26일 오후 8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탑승자 243명 가운데 108명이 생존했고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구조 당국은 선체 내부와 사고 해역은 물론, 시신이 발견된 칼리만탄 해안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으며 수색 작업을 7일 더 연장했다.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에서는 선박 사고가 반복될까?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군도 국가 중 하나다.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는 여객선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비행기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자동차와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배를 이용한다.

그러나 운항하는 선박이 많고 해상 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원회(KNKT)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조사한 Ro-Ro 여객선 사고는 46건에 달한다.

KNKT가 과거 선박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해상 안전에서는 여러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실제 허용량을 초과해 승객과 화물을 싣는 과적, 부정확한 승선 명단, 선박의 안전 점검과 관리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차량을 함께 싣는 여객선은 차량이나 화물의 무게가 지나치게 많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높은 파도를 만났을 때 선박의 균형을 잃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기상 상황도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인도네시아 주변 해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빠른 해류가 발생할 수 있어 출항 전 정확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운항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에도 거센 파도와 빠른 해류는 잠수부의 선체 진입과 실종자 수색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모든 사고의 원인을 날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출항 전 선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승객과 화물의 실제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며, 과적을 막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악천후가 예상될 때 운항을 중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243명이 타고 있던 KM Virgo Transport 8의 사고는 단순히 한 척의 배에서 발생한 사고로만 볼 수 없다. 수많은 섬을 배로 연결해야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해상 교통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실종자 7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선박 안전 관리와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전 관리와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기 끝자락, 자카르타 하늘을 뒤덮은 회색빛 공포 '미세먼지'와 전쟁

JIKS 11김태경

아침 등굣길에 창밖을 바라보면 자카르타의 높은 건물들이 뿌연 하늘에 가려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비가 내린 다음 날에는 비교적 맑은 하늘이 보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회색빛으로 변하기도 한다. 자카르타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비가 올지 확인하는 것만큼 오늘의 공기는 어떤지도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된다.

실제로 2026년 9월 자카르타에서는 지역에 따라 대기질이 좋지 않은 날이 반복됐다. 자카르타 환경청(DLH Jakarta)이 운영하는 대기질 측정망을 보면, 같은 자카르타 안에서도 측정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휴대전화 앱에 표시되는 도시 전체 수치만 보기보다,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과 가까운 측정소의 정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PM2.5

대기오염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PM2.5다. 입자가 매우 작아 단순히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자카르타 환경청도 대기질이 좋지 않을 때는 야외에서 강도 높은 활동을 줄이고,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한 사람들은 더욱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대기오염은 먼 곳의 환경 문제가 아니다.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하교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바깥 공기를 마신다. 축구나 농구처럼 야외에서 오래 뛰는 날에는 그날의 대기질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도 필요하다.

왜 자카르타의 공기는 쉽게 맑아지지 않을까

자카르타의 대기오염 문제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수많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뿐 아니라 산업시설과 발전 부문의 배출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기상 조건까지 더해지면 오염물질이 쉽게 흩어지지 못하고 도심에 머물 수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도로를 보면 대기오염 문제가 시민들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실감할 수 있다. 수많은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교통 체증으로 차량이 오랜 시간 도로에 머무는 모습은 자카르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단순히 '건기라서 생기는 현상'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같은 도시에서도 다른 공기

대기질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날에도 지역별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 측정 위치와 주변 교통량, 기상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대기질 서비스의 AQI도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고, 기관마다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간의 수치만으로 자카르타의 평소 대기질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마스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공기가 좋지 않은 날 마스크를 쓰고 야외활동을 줄이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 도시 전체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차량과 산업시설의 배출을 꾸준히 관리하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기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특히 학생이나 어린이처럼 매일 등하교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대기질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

자카르타에서 살다 보면 교통 체증이나 흐린 하늘을 어느새 당연한 일상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매일 마시는 공기까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침마다 AQI를 확인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창문을 열 수 있는 도시, 마스크 없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려면 개인의 노력과 함께 교통·산업 등 오염원을 줄이려는 꾸준한 정책과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깨끗한 공기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이기 때문이다.

1달러=18,000루피아 시대,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JIKS 11 하헌재

지난 9월 29일, 인도네시아 경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등장했다. 달러당 18,000루피아. 이날 루피아 가치는 달러당 18,000루피아 아래로 떨어졌고, 장중에는 18,010루피아까지 하락했다. Reuters는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상승 등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 루피아 약세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환율은 은행이나 주식시장에서만 중요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의 가격부터 해외여행, 온라인 쇼핑, 해외 유학까지 다양한 생활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환율이란 무엇일까? 환율은 쉽게 말해 한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 1달러를 사는 데 17,000루피아가 필요했다가 18,000루피아가 필요하게 됐다면, 같은 1달러를 사는 데 더 많은 루피아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를 루피아 가치가 달러에 비해 하락했다고 표현한다.

실제로 9월 22일 Bank Indonesi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7,855루피아였지만, 일주일 뒤인 9월 29일에는 18,000루피아 선을 넘어섰다. 루피아 가치가 떨어지면 인도네시아에서 달러로 물건을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제품을 수입한다고 생각해 보자.

1달러 = 17,000루피아 → 1,700,000루피아
1달러 = 18,000루피아 → 1,800,000루피아

제품의 달러 가격이 그대로인데도 환율 때문에 10만 루피아가 더 필요하다. 기업이 이러한 비용 증가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경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수입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수입가격 상승이 도매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따라서 루피아 약세는 단순히 환전할 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환율 변화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서 1,000달러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환율이 달러당 17,000루피아일 때는 약 1,700만 루피아가 필요하지만, 18,000루피아가 되면 약 1,800만 루피아가 필요하다. 같은 1,000달러를 사용하는데도 100만 루피아가 더 필요한 셈이다. 물론 실제 환전 금액에는 은행이나 환전소의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루피아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를 사용하는 해외여행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다. 한국에 있는 친척이 물건을 보내거나, 한국에서 결제한 상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한다면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달러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루피아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물건을 구입하는 데 더 많은 루피아가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루피아를 달러로 바꾸어 보내는 경우에도 환율 변화가 영향을 준다. 결국 환율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운 생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루피아 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가격이 바로 오를까? 그렇지는 않다. 환율이 달러당 18,000루피아가 됐다고 해서 다음 날 모든 물건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제품마다 수입 원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기업이 재고를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있는지, 다른 비용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환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루피아 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물가가 바로 오른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수입품과 원자재, 생산비용 등을 통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다면 왜 9월 말 루피아는 18,000루피아 선까지 떨어졌을까?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Reuters에 따르면, 9월 29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7%를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달러의 매력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신흥국 통화보다 달러 자산을 선호할 수 있어 루피아에도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Bank Indonesia 역시 최근 루피아 약세의 배경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사실 중요한 것은 18,000이라는 숫자 자체만이 아니다. 1달러가 17,000루피아인지 18,000루피아인지에 따라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드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는 한국 학생이라면 환율을 더욱 가까운 문제로 느낄 수 있다. 한국에서 가져온 학용품, 해외에서 구입하는 전자제품, 온라인 구독 서비스, 해외여행,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등 일상 곳곳에서 환율의 영향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변화는 뉴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갑에서 꺼내는 돈의 액수로도 나타날 수 있다. 1달러=18,000루피아 시대. 이 숫자가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인도네시아에는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을까?

RCS 12 서라임

인도네시아의 도로에서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수많은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메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4년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약 1억 3,945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자동차는 약 2,044만 대에 그쳤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아, 사람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개인 교통수단에 의존하게 됐다. 세계은행은 소득 증가와 차량 대출 금리, 연료 가격 등의 요인도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서 오토바이는 실용적인 교통수단이다. 도로가 막히면 자동차는 이동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을 차지해 복잡한 도로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2024년 발표된 인도네시아 도시 교통 연구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저렴하고 교통체증 속에서도 이동하기 편리해 대도시에서 선호도가 높다. 세계은행 역시 인도네시아 도시의 대중교통이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충분히 대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토바이는 단순한 개인 교통수단을 넘어 인도네시아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및 이동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오토바이는 운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존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이동성을 보완해 왔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실제로 오토바이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 BPS 자료를 분석한 Katadata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인도네시아 가구의 84.22%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카르타에서도 약 85%의 가구가 오토바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토바이가 일부 사람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가정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결국 인도네시아에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단순히 오토바이를 좋아해서만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높은 이동 편의성, 심한 교통체증, 부족한 대중교통이 함께 작용해 오토바이가 실용적인 선택지가 된 것이다. 동시에 오토바이의 급격한 증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중교통을 개선해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인동포 외국인 전용 건강검진 사업
국가별 도시별 글로벌 파트너 모집
검진예약 원스톱 플렛폼 '스캔포스트'

ScanPost 스캔포스트
Korea Medi Check Solutions & Services

www.scanpost.kr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식 글로벌 에이전시
- AI기반 최첨단 의료 인프라와 최다 의료진
- 여행지 전국 주요도시 17개 지부에서 검진
- 외국인 전용 검진센터(인천.서울.원주.부산.제주)
- 내/외국인을 위한 동일 가격 패키지 제공
- 주요도시 국내 관광 여행 최고 패키지 완비

코리아메디패스 (Korea Medipass) | 한국건강관리협회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SOFTZION | HanInPost 한인포스트 | JACY CLUB

@scanpost
koreascanpost@gmail.com / kakao ID : scanpost
www.scanpost.kr





